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020-10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2012



기획재정부

2012

나 라 살 림

예 산 개 요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목 차

01

제1부 201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5
----------------------------	---

제1장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7
--	---

제2장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21
---	----

02

제2부 2012년도 나라살림	31
-----------------	----

제1장 2012년도 나라살림 종합	33
--------------------	----

1. 재정운용 여건	35
2. 세입 규모	36
3. 지출 규모	43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7

제2장 재정운용 방향	51
-------------	----

1. 자원배분 방향	53
2. 중점 추진과제	59
3.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87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89
--------------	----

1. R&D 분야	91
2.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9
3. SOC 분야(4대강 포함)	105
4.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116
5. 보건 · 복지 분야	126
6. 일자리 분야	137
7. 교육 분야	143
8.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151
9. 환경 분야	159
10. 국방 분야	167
11. 외교 · 통일 분야	172
12. 공공질서 · 안전 분야	178

03

제3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85

제1장 2012년도 예산 187

1. 2012년도 예산 총칙	189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194
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228
4.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230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231
6.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232

제2장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41

1. 기금 요약 (Summary of Funds)	243
2. 기금운용 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245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246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249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5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201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 제1장 |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들녘과 바다에서 땀 흘리는 농어민 여러분, 시장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 생산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가을에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벼농사 작황도 나아지고 과일이나 채소 농사도 잘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서울 G20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우뚝 섰고, 국민적 자부심과 긍지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도발로 아까운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연초부터 몰아친 구제역과 여름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여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모은 어린 학생들, 자원봉사자, 각급 단체와 군경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피해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산업은 약진을 거듭하며 세계 7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고 417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재정위기로 다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쏟아 오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인 3년 만에,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비롯된 글로벌 재정위기는 미국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빠르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인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두 축인 미국과 유럽에서 위기가 시작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번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합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국가 평균 98%의 1/3에 불과합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되어, 외환보유액은 3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한 3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경제체제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빈틈없이 살피면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서로가 그물같이 얽힌 글로벌 시대의 위기는 각국의 노력과 함께 글로벌 공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다음 달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때, 우리나라는 전 의장국으로서 모든 나라가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합니다. 위기의식을 갖되 지나친 위기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상황과 위기극복 능력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거둬드는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진화의 성장통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위기는 오히려 커다란 기회입니다.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우며 슬한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기에 이번 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둬드는 세계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

보화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빈부 격차라는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는 승자독식형 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누리면서도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파국적 위기를 피하는 '지속적 성장' 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 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이 진화하듯 우리 사회도, 우리 경제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 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작년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바닥까지 전해지기 전에 또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공생발전은 모두가 사는 '원-원 관계' 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공생발전' 을 잘 해 나간다면, 오늘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책임과 배려, 상생의 윤리가 더 크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생발전이 꿈꾸는 사회는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행복한 사회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예산 편성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제 회복에 힘입어 우리의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만 40여 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고용-복지' 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고용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문제의 본격적 해결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 대책은 이 문제의 핵심인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강화하고, 4대 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학력' 대신 '능력' 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취업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거나, 막상 취업을 해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졸업자는 취업 3년 뒤 대학진학 기회를 주는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고졸 채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 고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최근 수년 간 기상이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생활에 주름살이 깊어졌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물가구조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3월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중간상인만 득을 보고, 농민과 소비자는 모두 피해를 보는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은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채를 이용하는 서민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중소형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도심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의 힘이 살아나려면 이와 함께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습과 관행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튼튼한 기업생태계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10월 중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하고,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동반발전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보다 기업문화 변화가 중요합니다. 동반발전이 경쟁력의 윤리적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대기업부터 기업문화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일관되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증원하여 지역 단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가족친화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퇴직에 대비하여 100세 시대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 환경과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배움의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성 확립과 재능 개발에 가장 중요한 영유아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공통과정으로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력히 유도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목등록금이 평균 5% 인하되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부담 수준은 평균 22% 이상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국민 자부심을 높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아시아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흥국·개도국, 對중동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도 국가 위상에 걸맞게 2015년까지 지금의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제2의 창군' 정신으로 철저한 국방개혁을 완수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싸울 수 있는 전투형 군,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 '군다운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입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초, 의원 여러분의 협력으로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 이행점검체계'를 확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녹색 건축물, 녹색생활, 에너지 절약 등 그동안 발표된 다양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금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OECD 녹색성장 전략 보고서」가 채택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첫 번째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도 세계 각국과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이번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세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녹색강국의 길을 계속 개척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여름 우리는 긴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를 겪으며 기후변화의 결과를 실감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기준 선진화로 기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풍과 기습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금년 4대강 유역 홍수피해는 예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장마기간과 강우량이 올해와 비슷했던 1998년,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은 반복적인 홍수와 댐질식 재해복구라는 후진국형 연례행사를 극복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질 개선과 관리에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4대강 지원정비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마트 기기 확산, 미디어의 다양화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계와 만나고 경쟁하는 시대, 세계와 하나로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상파 TV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명실상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고,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산업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무한한 경쟁 공간이자 광대한 상상력의 영토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콘텐츠가 없는 국가나 민족은 단 한 치의 영토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지식재산 기본법”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관 합동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금년 중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 R&D 예산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11% 증가하여 2008년 11조1천억원에서 금년 14조9천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식 기반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역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R&D 촉진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은 지구촌 시대의 큰 조류입니다. 20세기가 ‘국가 중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광역화·특성화를 통해 오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호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생발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주요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지방과 공공기관이 함께 발전해가기 위한 공생전략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확장과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방개혁 관련법안 등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생·개혁 관련 중요 법안들 중 일부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주 미국 국민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아래 균형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함으로써 불안정한 세계경제 순환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내년 재정지출은 326조 1천억원으로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 9.5%보다 4%p 낮은 5.5% 수준으로 편성하여, GDP 대비 관리대상 수지를 $\Delta 2.0\%$ 에서 $\Delta 1.0\%$ 로 1.0%p 개선시키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2.8%로, 2011년보다 $\Delta 2.3\%$ p 감소하게 되고,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 「일자리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동력을 이어나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섯 가지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수요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학-구직-취업' 3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문화·관광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과 고령자에게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부양가족에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일하는 복지'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신규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12년 예산은 일자리 확충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등 성장촉진적인 투자를 유지·확대하겠습니다. SOC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질 개선 등 환경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등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지구촌 4대 스포츠 축제를 모두 유치한 세계 여섯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쳐왔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 삼아 당당한 선진일류국가로 비상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전진해 온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생발전은 우리 국민의 높은 잠재력을 결집하여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비전입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도정에서 2012년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을 빠짐없이 챙겨 온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특히 측근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국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 법안 처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 이 명 박

| 제2장 |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존경하는 정갑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글로벌 여건의 변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위기요인들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을 헤쳐 나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나는 '도전과 기회의 한 해' 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정책의 결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성장의 온기가 구석 구석 퍼지는 2012년을 기대하면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경제의 변동성도 덩달아 커졌지만, 외환·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세계 8위로 3천억불이 넘고 한·일(700억불), 한·중 통화스와프(560억불)를 맺으면서 외화유동성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단기외채 비중도 37.6%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 평가에서는 183개국 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상 첫 10위권 진입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30개가 넘는 나라들의 신용등급을 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유지했습니다. 두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위기대응 능력도 크게 강화된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고 경계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정위기국의 문제해결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재정위기가 견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우리 경제도 그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2008년처럼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

라,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서서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거시지표들과는 달리, 경기 회복에 대한 서민 체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지금 우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정책수단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거시정책의 공간도 넓혀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와 물가에 역점을 두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에 윤기를 더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고용과 물가 지표가 다른 지표들보다 최근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는 반가운 일입니다.

2012년 예산의 의미

2012년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균형재정을 회복할 기틀도 마련해야 합니다. 2008년 시작된 일련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깨끗이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아울러 시장 참가자들이 그 나라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핵심지표입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소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생발전'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짰습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전체 모습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326조 1천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5.5% 늘렸습니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5.5%)을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p 낮게 잡았습니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Delta 2.0\%$)보다 줄어든 $\Delta 1.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35.1%)보다 크게 줄어든 32.8%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내려가서, 2013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30%대 초반(31.3%)으로 회복되고, 2014년도 이후에는 20%대로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2012년 재정운용의 중점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의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은 경제성장과 복지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통해 일을 매개로 「일-성장-복지」가 서로 시너지를 나타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향구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됩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SOC, R&D투자,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간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일자리 개척을 위한 4대 핵심일자리 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대 핵심일자리 사업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 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입니다.

첫째,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전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구직 중에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취업한 뒤에는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창의적 기질과 능력을 맘껏 발휘하도록 문화·관광분야,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도 적극 돕겠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부양가족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4대 핵심일자리 확충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38.9% 증가한 2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이 대상이며, 지원액은 1/3입니다.

재정으로 직접 만드는 일자리는 고용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차츰 줄여나가야 하지만,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올해보다 오히려 2만명 늘어난 56만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내년 예산에는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렸습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4% 증가한 92조원입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28.2%입니다.

특히,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에 21% 늘어난 25조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보육, 교육, 문화, 주거 및 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1만 5천원을 5천원으로 낮추고 차액은 정부가 대신 내겠습니다. 내년부터 만 5세아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토요문화학교 100개소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갖도록 하고 저소득 청소년에게는 문화바우처도 따로 제공합니다. 학업 의지만 있다면, 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2%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장년·노인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소형 위주로 공급하면서, 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금융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치매·중풍 등을 앓는 노인성 질환자 33만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병과 전·의경,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ی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6만 1천명을 추가로 보호대상에 편입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6개월이던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취학전까지로 늘렸습니다.

통·번역사와 전문 상담인력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외갓집이 필리핀, 몽골, 베트남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지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늘리고, 전·의경 탑승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바꾸는 등 열악한 복무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중부권과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1급 중상이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해 투자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올해보다 8.1% 증가한 61조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우리경제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SOC는 내년에 끝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투자규모가 21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되며, 지역경제와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수질개선과 수해예방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6.3% 늘어난 6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102조 7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내수기반을 넓히기 위해, 우리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 투자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창업·성장유망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천억원 늘리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6조 2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문화콘텐츠, 전통문화 활용 관광산업 등 문화·관광·체육분야에 4조 4천억원을 투자합니다.

아울러, 한·미 FTA에 따른 농어민 피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자본금 확충과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18조 1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도 긴요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2,500대로 늘리고 공공기관 조명을 LED로 바꾸는 등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R&D투자는 올해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7.3% 늘어난 16조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원천 투자비중을 최초로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교육분야는 9.3% 늘어난 45조 1천억원을 투자합니다. 재정지원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셋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한 나라와 '더 큰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북한 국지도발에 대응한 핵심전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어 33조 2천억원을 투자합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시설을 확대하고 성범죄 예방, 먹을거리 안전을 포함한 생활안전 투자 등 공공질서·안전분야에는 14조 5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외교·통일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민소득(GNI) 대비 0.15% 수준인 1조 9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3조 9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 재정지출 효율화 등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에도 힘썼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정비하고 특히 최초로 국고보조 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201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4,944억원 규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요청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선진일류국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사는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토대까지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이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희망찬 내일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나아가 산소탱크 같은 예산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까지 심의·확정되어 제때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기꺼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02

2012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12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 제1장 |

2012년도 나라살림 종합

1 재정운용 여건

금년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유럽 등 신흥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동반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국제공조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세계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OECD	3.4	2.0	0.2	2.0	8.5	7.5
IMF	4.0	1.8	1.1	2.3	9.0	7.5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9), OECD Economic Outlook(2011.11)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연간 3.7%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세 등으로 내수는 상대적인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부진과 불확실성으로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 2012년 경제 전망(%)

	2010년	2011년 ^a	2012년 ^a
경제성장률	6.2	3.8	3.7
- 민간소비	4.1	2.5	3.1
- 설비투자	25.0	4.3	3.3
- 건설투자	△1.4	△5.4	2.9
수출증가율(통관기준)	28.3	19.2	7.4
수입증가율(통관기준)	31.6	23.2	8.4

* 자료: 2012년 경제정책 방향(2011.12.12)

2 세입 규모

| 2-1 | 총수입 : 2011년 대비 9.3% 증가한 343.5조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1년 314.4조원 보다 9.3% 증가한 343.5조원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산수입은 2011년 대비 10.3% 증가한 234.0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11년 대비 9.7% 증가한 205.8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1년 세수실적 호조, 비과세·감면 정비, 세법개정 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09.3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4.7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1년 대비 7.1% 증가한 109.5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 2012년 총수입 전망

(단위:조원, %)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b/a)
총 수입	314.4	343.5	9.3
○ 예산	212.1	234.0	10.3
(국세) ¹⁾	(187.6)	(205.8)	(9.7)
일반회계	188.9	209.3	10.8
특별회계	23.2	24.7	6.7
○ 기금	102.2	109.5	7.1
(사회보장성기금) ²⁾	(55.4)	59.4	(7.1)

1)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차감 기준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참고]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3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5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text{총수입} = \text{일반회계수입} + \text{특별회계수입} + \text{기금수입} - \text{내부거래} - \text{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2-2. 예산 수입 : 2011년 대비 10.3% 증가한 234.0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세입 : 2011년 대비 10.8% 증가한 209.3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데 2012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1년(180.8조원) 대비 9.1% 증가한 197.3조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1년(8.1조원) 대비 47.2%가 증가한 12.0조원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세목별로 조세수입 규모를 추정한 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이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11년 대비 9.8% 증가한 16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 소비 및 수입 증가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도 내국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과 그 외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세외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1년 예산(8.1조원)보다 3.9조원 증가한 12.0조원수준으로 전망된다. 주식매각수입은 1.2조원, 그 외 경상세외수입은 2.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경상세외수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벌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5.6조원(+1.0조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9조원, 출자배당수입 등 재산수입이 2.3조원(+1.8조원) 등이다.

표 2-2 • 2012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조원, %)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b/a)
합 계(I+II)	188.9	209.3	10.8
○ 국세(I)	180.8	197.3	9.1
내국세 ¹⁾	151.3	166.1	9.8
관세	11.3	11.6	2.2
교통·에너지·환경세	12.4	13.7	10.7
교육세	4.6	4.8	3.6
종합부동산세	1.1	1.1	△ 0.5
○ 세외수입(II)	8.1	12.0	47.2
주식매각수입	0.8	2.0	151.9
경상세외수입	7.4	10.0	36.1

1)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발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과년도수입 등으로 구성

② 특별회계 세입 : 2011년 대비 6.7% 증가한 24.7조원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23.2조원) 대비 6.7% 증가한 24.7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용자회수·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는 2012년 8.5조원 수준으로 2011년(6.9조원)보다 1.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금 및 수수료 등 자체세입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인 16.3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 2012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조원, %)

구 분	2011년(a)	2012(b)	증감률(b/a)
합 계(I+II)	23.2	24.7	6.7
○ 국세(I) ¹⁾	6.9	8.5	23.5
○ 자체세입(II) ²⁾	16.3	16.3	△ 0.4

1) 주세·농어촌특별세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용자회수, 수수료 등

[참고] 2011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

①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대기업		중소기업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수도권내	수도권밖	
임투	4%	5%	5%		고용창출	기본공제 3%	추가공제 4%	4%
고용창출	1%	1%	1%		합계	5%	6%	7%
합계	5%	6%	6%					

-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면제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②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무자녀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총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 상향조정 등)
- 서민밀집 품목과 독과점 품목 등 관세율 인하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3년간)

③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고액채납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
* (채납금액)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채납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④ 조세체계 합리화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2-3. 기금 수입 : 2011년 대비 7.1% 증가한 109.5조원

2012년 기금 수입은 2011년 대비 7.1% 증가한 109.5조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은 7.7% 증가한 40.5조원이고, 용자원금 회수는 5.0% 증가한 23.0조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7.5% 증가한 4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용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2011년 보다 7.7% 증가한 40.5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회수하는 용자원금 회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회수 증가 등으로 2011년 보다 5.0% 증가한 23.0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기타수입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토지매각대 신규반영 등으로 인해 2011년 대비 7.5% 증가한 4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 2012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조원, %)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b/a)
합계(Ⅰ+Ⅱ+Ⅲ)	102.2	109.5	7.1
○ 사회보장기여금(Ⅰ)	37.6	40.5	7.7
○ 용자원금 회수(Ⅱ)	21.9	23.0	5.0
○ 이자수입 등 기타(Ⅲ)	42.8	46.0	7.5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국민주택기금 용자원금 회수 증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등으로 2011년 대비 7.2% 증가한 31.2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7.9% 증가한 70.8조원, 계정성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1.3% 감소한 7.5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 2012년 기금 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조원, %)

구 분	2011(a)	2012 ¹⁾ (b)	증감률(b/a)
합 계(54개)	102.2	109.5	7.1
○ 사업성 기금(44개)	29.1	31.2	7.2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²⁾	65.6	70.8	7.9
○ 계정성 기금(4개)	7.6	7.5	△1.3

참고로 국회에서 확정된 총 65개 기금운용계획상의 기금수입(기금운용규모)은 379.5조 원이나 통합재정 관점의 총수입은 109.5조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

둘째, 금융성기금 및 외평기금은 순수 재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54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총수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1)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지출 규모

3-1. 총지출 규모: 2011년 예산대비 5.3% 증가한 325.4조원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2012년 총지출은 325.4조원으로 2011년의 309.1조원보다 5.3% 증가한 규모이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지출은 228.1조원으로 2011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9.8조원, 특별회계는 48.3조원으로 2011년 대비 각각 5.5%, 5.1% 증가하였다.

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의 급여지출 확대,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등에 따라 2011년 대비 5.0% 증가한 97.3조원 수준이다.

표 3-1 • 2012년 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11(a)	2012(b)	증감률(b/a)
총 지 출	309.1	325.4	5.3
- 예 산	216.3	228.1	5.4
· 일반회계	170.4	179.8	5.5
· 특별회계(18개)	45.9	48.3	5.1
- 기 금	92.7	97.3	5.0

* 통합재정지출(총지출-융자수입): (2011년)279.5 → (2012년)294.3조원(5.3% 증)

[참고]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text{통합재정규모} = \text{경상지출} + \text{자본지출} + \text{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 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 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 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3-2. 예산 지출규모: 2011년 예산대비 5.4% 증가한 228.1조원

2012년도 총지출상 예산지출의 규모는 2011년 예산대비 5.4% 증가한 228.1조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1년 대비 5.5% 증가한 179.8조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5.1% 증가한 48.3조원이다.

총지출상 일반회계는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대비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2011년 예산대비 5.5% 증가한 179.8조원 규모이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고자 2012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제활력·미래대비 투자를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에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였다.

특별회계는 2011년 예산대비 5.1% 증가한 48.3조원이며, 기타특별회계 13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로 총 18개로 되어있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간 및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지출 증가율은 5.5%이다.

표 3-2 • 2012년 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11년(a)	2012(b)	증감률(b/a)
예산 지출	216.3	228.1	5.4
- 일반회계	170.4	179.8	5.5
- 특별회계	45.9	48.3	5.1
예산순계	235.6	248.6	5.5

3-3. 기금 지출규모 : 2011년 대비 5.0% 증가한 97.3조원

2012년 기금 지출 규모는 2011년보다 5.0% 증가한 97.3조원 이다.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27.0조원으로 2011년보다 7.6% 증가하였다.

2012년도 기금 지출규모는 2011년보다 5.0% 증가한 97.3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보금 자리 주택 물량, 청년창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2011년 대비 7.2% 증가한 80.5조원 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을 반영하여 2011년보다 8.7% 증가한 41.2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11년 대비 5.3% 증가한 1.4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 감소 등에 따라 2011년 대비 5.5% 감소한 15.4조원이다.

표 3-3 • 2012년 기금 지출규모

(단위:조원, %)

구 분	2011(a)	2012년 ¹⁾ (b)	증감률(b/a)
합 계 (54개)	92.7	97.3	5.0
[[사회보장지출 ²⁾	25.1)	(27.0)	(7.6)
사업비	75.1	80.5	7.2
- 사업성 기금(44개)	34.9	37.1	6.3
- 사회보험성 기금(6개) ³⁾	37.9	41.2	8.7
- 계정성 기금(4개)	23	22	△4.3
기금운영비	1.4	1.4	5.3
차입금이자상환	16.3	15.4	△5.5

1)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3)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1. 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2년 통합재정수지는 18.1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Δ 14.3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이는 2011년 보다 통합재정수지로는 12.8조원, 관리대상수지로는 10.7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당초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1년 앞당겨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2012년 예산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예산으로서 총지출 증가율(5.3%)을 총수입 증가율(9.3%)보다 4.0%p 낮게 유지하여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통해 관리대상수지는 점차 개선되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소폭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012년 세입측면에서는 2011년 세수실적 호조와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 등으로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고, 한은잉여금 세입계상, 출자배당수입 증가 등에 따라 세외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세출측면에서는 법적·의무적 지출, 서민생활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 생산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하고, 보조사업은 별도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세입여건 개선 및 지출 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에 흑자기조가 확대되어 18.1조원 흑자로 2011년 보다는 12.8조원 개선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4.3조원 적자로 2011년 보다는 10.7조원 개선된다. 관리대상수지의 GDP대비 비율은 △1.1%로서 2011년 △2.0% 보다는 0.9%p 개선된 모습이다.

표 4-2 • 개정수지

(단위:조원, %)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b/a)
통합재정수지(I)	5.3	18.1	12.8
(GDP 대비, %)	(0.4)	(1.4)	-
-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II)	30.3	32.4	2.1
관리대상수지(I - II)	△25.0	△14.3	10.7
(GDP 대비, %)	(△2.0)	(△1.1)	-

[참고] 관리대상수지란 ?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원금 소요(2003년~2006년까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장래 연금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이 초기단계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실제 국가채무의 증가와 관리대상수지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지표로서 관리대상수지는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대상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4-2. 국가채무

2012년 국가채무는 2011년 채무 전망치인 422.7조원 보다 23.2조원 증가한 445.9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19.1조원), 일반회계 국채(13.8조원) 등에 기인한다. 201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3.3%)은 2011년(33.3%)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수준인 30%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국가채무 전망치 422.7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49.4% 수준인 208.7조원이며, 나머지 50.6% 수준인 214.0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용자채권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49.2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의 외평채와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에 순수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국민주택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상황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 국가채무 (2012년 예산 기준)

(단위:조원, %)

	2010년 결산	2011년		2012년 예산
		예산	전망	
○ 국가채무	392.2	435.5	422.7	445.9
(GDP대비, %)	(33.4)	(35.1)	(33.3)	(33.3)
① 적자성 채무	193.3	220.0	208.7	221.0
일반회계 적자국채	119.7	146.7	136.3	149.2
(순증)	(22.7)	(21.0)	(16.6)	(13.8)
공적자금 상환	47.0	47.0	45.7	45.7
지방정부순채무	18.4	18.2	17.8	18.2
② 금융성 채무	199.0	215.4	214.0	225.0
외평기금·채권	120.6	138.4	137.7	155.7
주택기금·채권	49.3	48.2	48.6	48.5
공자기금 융자계정	10.4	9.2	8.4	5.9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20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2012년 예산기준으로 GDP 대비 33.3% 수준이다. IMF 전망자료에 의하면 G-20 국가의 채무수준은 GDP 대비 미국 105.0%, 일본 238.4%, 독일 81.9% 등이며, G-20 평균은 80.1%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4-3 • 국가채무 국가간 비교 (2012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G-20 평균
국가채무 /GDP(%)	33.3	105.0	238.4	81.9	89.4	84.8	80.1

* IMF Fiscal Monitor(2011.9), IMF 전망 기준, 한국은 2012년 예산 기준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불안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 재정상황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13년 GDP대비 국가채무를 30% 초반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목표를 두고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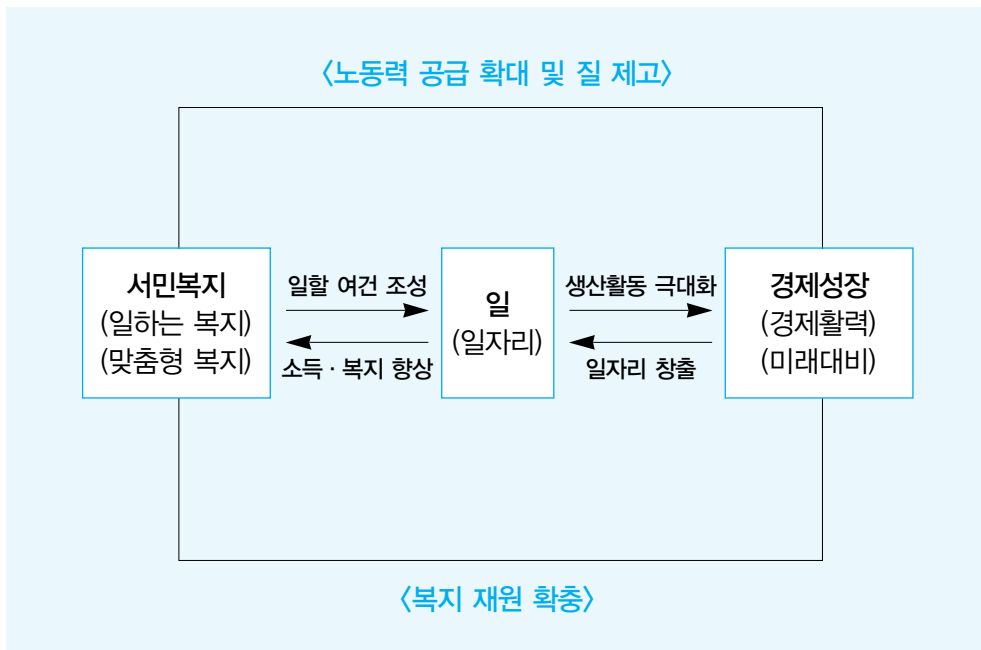
| 제2장 |

재정운용 방향

1 재원배분방향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재정건전성도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산층의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 국면에서 경기대응적인 재정운용을 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 예산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와 단기적 경기 대응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크게 4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첫째, 2012년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이다. 2012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新 일자리 개척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① 청년 창업 활성화, ② 3단계(재학-구직-취업) 고졸자 취업 지원,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복지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할 여건과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대폭 확대(5→7만)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와 교육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표 1-1 • 2012년 일자리 예산

(단위:억원, %)

	2011년	2012년	증감	
				%
【 합 계 】				
(부문간 중복분 제외)	94,724	104,947	10,223	10.8
4대 핵심 일자리	14,397	20,055	5,658	39.3
① 청년 창업 활성화	2,350	4,980	2,630	111.9
② 고졸자 취업지원	5,114	6,520	1,406	27.5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1,305	2,199	894	68.5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5,629	6,356	727	12.9
재정지원 일자리	89,578	96,279	6,701	7.5
① 직접일자리 창출	23,651	25,127	1,476	6.2
	(54.1만명)	(56.4만명)	(2.3만명)	
② 고용서비스 인프라	65,927	71,152	5,225	7.9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654	2,654	순증

둘째, 2012년 예산은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에 2011년보다 23% 늘어난 27.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보육, 교육, 문화, 주거 및 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만원 지원 12세까지 총 22만원 경감	0~2세 및 만5세아 보육료· 학비 전액지원	19.2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급	기초 수급자 초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바우처 5만원 추가지원	중산층이하 대학생 등록금 최대 27% 부담경감	전세보증금 장기저리 융자등 주택금융 지원 확대	치매·중풍을 앓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	------------------------------------	---------------------------------	-------------------------------------	---------------------------------------	---------------------------------------	--------------------------------------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병과 전·의경,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포폴리듬과는 차별화한다.

표 1-2 • 2012년 맞춤형 복지 예산

(단위: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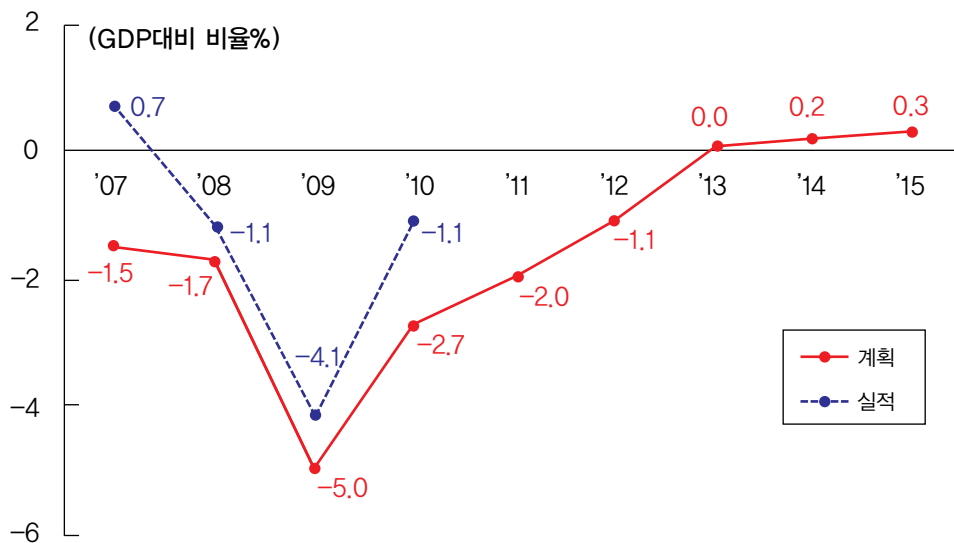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증감	%
합 계】		221,987	273,537	51,550	23.2
생애 주기	① 보육	18,458	32,556	14,097	76.4
	② 교육	1,349	19,098	17,749	1,315.6
	③ 문화	381	593	212	55.6
	④ 주거·의료	152,366	162,536	10,170	6.7
수혜 대상	⑤ 저소득층	296	2,700	2,404	811.5
	⑥ 장애인	1,249	3,722	2,473	198.1
	⑦ 노인	6,334	6,830	496	7.8
	⑧ 다문화가족	468	524	56	12.0
	⑨ 농어업인	3,782	4,358	575	15.2
	⑩ 장병 및 전·의경	12,689	14,118	1,429	11.3
	⑪ 국가유공자	24,615	26,504	1,888	9.4

셋째는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 나아가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SOC 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뒷받침을 위한 하수관거 등 환경투자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3.2→3.3조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는 저탄소 녹색사회·녹색산업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에 전기차 2,500대를 보급하고,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확대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적극 지원한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방재시스템 구축(4.3→5.2조원), 국민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0.15%로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를 위한 투자에도 신경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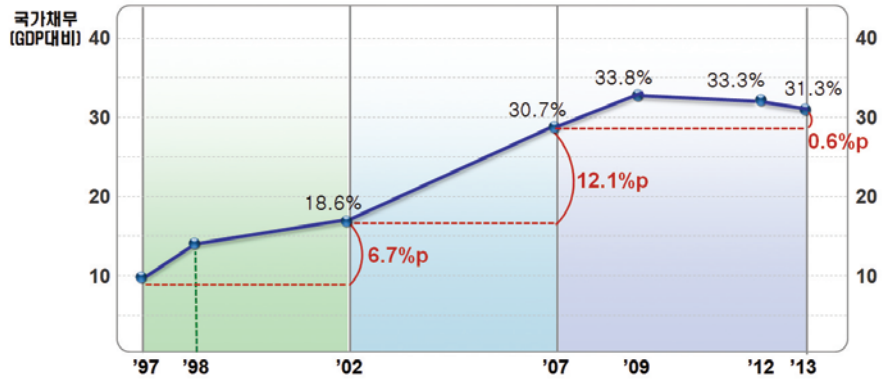
넷째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군살을 뺀 예산이다. 균형재정 달성은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미래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최대한 낮게 유지하여,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소폭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림 1-1 ●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또한, 국가채무 관리도 강화하여 2013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초반 수준으로 낮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그림 1-2 •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 2012년 예산의 틀 〉

- ◇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정립
- ◇ 균형재정 2013년 조기달성의 기반 마련
 - ⇒ 활기찬 경제, 따뜻한 사회로 공생발전을 뒷받침



2 중점 추진과제

1.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

- (1) 新 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
- (2) 일할 여건 조성 및 일할 능력 제고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 (3)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 (4)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 (5) 지역경제 활성화
- (6) 내수기반 확대
- (7)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 (8)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1) 新 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아이디어 창업·창업초기 지원에 필요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여 2,0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창업자금 용자와 창업 컨설팅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용자자금을 800억원 지원하고, 창업에 실패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까지 상환금의 일부를 조정해주는 자금(500억원)도 신설·운용한다.

● 3단계(재학-구직-취업) 고졸자 취업 지원

고등학교 재학중에는 취업의욕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활용한 '심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고졸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의 고졸자 채용인원을 1만 2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중 고졸자 채용 비율을 4%에서 20%로 확대한다.

先취업 後진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신규로 12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용규모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 블루오션인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

영화·음악(K-POP)·뮤지컬·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및 창조관광사업 지원을 467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베이비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 확충 및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인턴 및 해외봉사단 지원 규모를 786억원에서 907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위주에서 대학 등 민간주도로 실시하는 ODA프로젝트를 신규로 지원한다.

● 一石三鳥 효과가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장애인·노인 등은 복지서비스 수혜,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제공, 부양가족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6.7만 명에서 17.6만 명으로 확대한다.

● 재정지원 일자리 2만명 확대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는 56만 명으로 2011년보다 약 2만 명 확대하며 지원규모는 9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늘어난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2012년에도 지원

2011년 종료 예정이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을 감안하여 2만 명으로 2012년도까지 연장 지원한다.

(2) 일할 여건 조성 및 일할 능력 제고

● 212만명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일하는 빈곤층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업·노후위험에서 보호하고 생계 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이 신규로 추진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2012년 기준 월 125만원) 근로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1/2 ~ 1/3 지원한다. 2012년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총 소요는 2,654억원 수준이다.

●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2만 명 확대하고, 패키지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교육 및 의료급여를 2년간 제공(1인당 연 252만원 수준)하는 이행급여를 신규로 제공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전제로 청년 및 장년 실업자에게 최대 31.6만원, 최장 4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구직 동기를 제공하는 사업에 1,529억원을 지원한다.

● 베이비붐 세대 등을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 강화

4050세대 및 교육소외계층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을 2011년 54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 맞춤형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학 지원을 확대(1,405→1,820억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확대(2,320→3,273억원)한다.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3)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3-1) 보육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 0~2세에 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0~2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여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3~4세아의 경우에는 2011년도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가정까지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총 115만명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2011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 확대에 따라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5만원씩 신규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는 어린이집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0~4세반 보육교사에 대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다.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3천명 추가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 등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 등에 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07:30~19:30 시간대 외에도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확대하였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36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무관(84개월, 취학전)하게 지원한다. 이는 장애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지원금액도 36개월 미만까지는 20만원, 3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민간병의원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병·의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금 1만5천원 중 1만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그간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만 지원하였으나 접종 행위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접종률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1종) :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3-2) 교육 :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대학등록금 최대 27% 수준 부담 완화

국가장학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재정비하여 학생개인의 성적, 소득수준,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국가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지원방식은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I 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차등지원하고(0.75조원), II 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에 따라 1.0조원을 대학에 배분하고, 대학은 재학생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급률을 정하게 된다. 특히, II 유형은 대학이 자구노력(등록금 인하)을 할 때만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1.75조원의 국가장학금과 최대 1.0조원 규모의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7분위 이하 학생 최대 27% 이상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소득분위별로는 기초생보자의 경우 평균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2-1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액 (만원)

	지원규모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I 유형	0.75조	450 (100%)	225 (50%)	135 (30%)	90 (20%)	×	×	
II 유형	1.00조	평균 58만원 → 75만원						×
대학 자구노력	1.00조	평균 38만원(최대 51만원)						
총 부담 완화*	2.75조	563	338	248	203	113	38	

* 대학별 자체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13만원의 추가 부담완화 가능

● 기초수급가구 초등학생 교육급여 신설

작년까지 교육급여 제도를 통해 기초수급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학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가구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한다(27억원). 이에 따라 9.5 만명의 초등학생이 연간 3만 6천원 수준의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충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를 조기진단하고 보건·교육·복지통합서비스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거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습지도·상담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3,260개소에서 3,500개소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월 370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센터를 130개소에서 181개소로 큰 폭으로 확충하였다. 또한 저소득 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을 확대하였다.(73→85억원)

(3-3) 문화 :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문화바우처 도입

취약계층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을 지원(문화·체육·여행바우처: 2011년 322억원 → 2012년 497억원)하여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가구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바우처 제도를 도입(차상위 이하 25만명 혜택)하여 신규 지원한다.

● 토요 문화·체육학교 140개소 신설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비하여 학교와 지역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토요일 문화예술·체육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토요 문화·체육학교 140개소를 개설하고 개소당 연 50백만원을 신규 지원(2012년 70억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 체육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존의 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증대시키는 한편, 예술인·체육인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3-4) 주거 및 의료: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뒷받침

● 보금자리주택 15만호를 소형·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보금자리주택은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8만호 공급하고(52,667억원),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주변 시세보다 15%이상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7만호 공급(47,768억원)한다. 서민들이 부담 가능하도록 60㎡미만 소형주택의 공급

비중을 공공임대주택은 80%, 공공분양주택은 70%로 각각 확대하는 한편, 단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2만 9천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 금리 인하, 대출한도 상향 등 주택자금 지원확대

주택자금 유형별로 최대 2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0.5~1%p의 금리 인하, 최대 2천만원의 대출한도 상향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특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4.2%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1년 대비 4,500억원이 증가한 6조 1,500억원을 주택기금에 배정하였다.

●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저체중 출생아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임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집중치료 의료비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을 2011년 124억원에서 2012년 136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보건소 등록관리 대상을 2011년 5개 보건소에서 2012년 20개소로 확대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한다.

●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우울, 스트레스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협 요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 예산을 2011년 159억원에서 2012년 277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2011년 138개소에서 2012년 156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된다.

(4)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4-1)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자활여건 조성

●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초수급자에 포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본인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월 266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379만원 이하이면 된다. 이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신규 보호된다.

● 기초수급자 대상 일반 건강검진 도입

의료급여 지원대상인 기초수급자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간 건강보험공단에 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67만명)는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신규 54억원).

●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 확대

근로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15→18천가구)하고, 근로소득장려금도 확대 지원(월 206→259천원)한다. 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수급자가 근로와 동시에 일정금액(월 5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적립액의 2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동절기 난방유 지원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에 난방유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세대, 한부모가정이며 가구당 등유 200ℓ를 한도로 제공한다.

(4-2)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제고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2011년 10월부터 확대 개편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하여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제도 수급자수를 5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하였다.

● 장애인일자리 확대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단가를 7천개에서 7.5천개로 5백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장애인안마사의 경우에도 2011년까지 9개월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 12개월을 지원하여 취업률이 낮은 시각장애인의 생활지원을 강화하였다.

● 발달장애아동 지원

뇌병변·자폐 등이 있는 발달장애아동 지원을 위하여 부모지원을 확대하였다. 발달장애의 경우 장애가 평생 지속되고, 가족의 돌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시 초음파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많이 받고, 제왕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출산시 1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3) 노인: 사회참여 촉진 및 건강증진

● 노인 일자리 22만개 제공

문화 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민간 분야 일자리 지원비중을 점증적으로 늘려 노인 일자리를 2011년 20만명에서 2012년 22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사회공헌형 : 거리지킴이, 환경지킴이, 숲생태·문화재 해설사 등

* 시장진입·자립형 : 실버카페, 도시락 판매, 지역특산물 제조 등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379만명에서 386만명으로 확대하고,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30.1만명에서 32.7만명으로 수혜자를 확대한다.

(4-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

● 통번역 및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결혼이민자가 행정·의료·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서류작성 등을 지원하는 통번역지원사를 2011년 210명에서 2012년에는 282명으로 증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단계 별로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자녀의 학교 알림장, 준비물 등을 챙겨주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2012년에는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1년에는 80개소 시범운영)로 전면 확대한다.

●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가족 상담 서비스 내실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2011년 연 280시간에서 2012년에는 연 400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전문인력을 2011년 453명에서 2012년에는 653명으로 증원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

공무원, 경찰 및 다문화관련 시설종사자 등 다문화가족과 자주 접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다문화사회 여건 변화에 적합한 중장기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하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5) 농어업인: 자립형 복지 증진

● 농지연금 수급인원 확대

2011년에 새로 도입된 농지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11년 500명에서 2012년 2,100여명으로 수급인원을 확대하여 고령농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70세 고령농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월 78만원의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재해로 인한 농어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11년 50개에서 2012년 61개로 확대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 (2011) 30종 → (2012) 35종(+인삼, 멜론 등)

* 가축재해보험 : (2011) 15종 → (2012) 16종(+오소리)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2011) 5종 → (2012) 10종(+참돔, 쥐치 등)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확대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확대하여 어려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2011년 1,200ha에서 2012년 1,300ha로 농지매입 면적을 확대하며,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에 7~10년 동안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한다.

(4-6) 장병 및 전·의경: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 장병 사기·복지 증진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전방의 전투부대 장려수당을 중대급 이하 부사관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월 7~5만원을 지급하고,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에 대해 당직수당(5천원/일)을 신설한다. 또한 원활한 부대활동 지원을 위해 주임원사활동비를 최고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대 참모부 운영비도 10% 인상한다. 이 밖에 장병휴가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1인당 연 46천원에서 56천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식비 단가도 1일 5,820원에서 6,155원으로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 의료체계 개선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소장병 15만명에 대해 뇌수막염백신을 신규 접종하고, 유행성이하선염백신 접종도 모든 입소장병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처음으로 군 생활중 상병 진급시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22개 의료시설의 시설을 개선하고, 민간 전문의사 채용은 37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규모 집단생활로 인한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신병훈련소의 위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개선 : (2011년) 188억원 → (2012년) 480억원

● 전·의경 처우개선

낡고 비좁은 전·의경 버스를 우등버스로 교체하고 노후 숙영시설을 개보수하여 전·의경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한마음 페스티벌', '부모간담회' 등 문화행사 개최 지원을 통하여 전·의경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 전·의경 버스교체 : (2011년) 0억원 → (2012년) 70억원
- 전·의경 숙영시설개선 : (2011년) 27억원 → (2012년) 39억원
- 전·의경 문화생활지원 : (2011년) 30억원 → (2012년) 47억원

(4-7)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4% 인상하고 중상이자 보상금은 14.1~31.8%, 6.25 군경자녀수당은 4.0~9.0% 각각 인상한다.

구 분	2011년 보상금	2012년 보상금	증가율(%)
1급1항~3항	월 3,875~4,449천원	4,218~5,294	14.1~31.8
경상이자(6급)	월 946천원	984	4.0
6.25 군경자녀수당	월 767~946천원	836~984	9.0~4.0

● 의료복지 등 확충

重輕傷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무료진료와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진료비를 증액(2011년 4,271억원 → 2012년 4,525억원)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지역별 안장수요를 감안하여 남부권에 이어 중부권, 제주권 국립묘지 추가조성하고 대전현충원 및 이천호국원의 묘역확충을 지원한다.(2011년 155억원 → 2012년 265억원)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5) 지역경제활성화

(5-1) SOC투자 적정 수준 유지 및 환경투자 확대

전체 SOC투자는 지난해 24.4조원보다 1.3조원 감소한 23.1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다만, 금년에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3.1조원→0.3조원)과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사업(0.4조원→0.1조원)을 제외한 SOC투자 규모는 작년 21.0조원에서 금년 22.7조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와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부문별로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의 적기 완공에 집중 투자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중점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및 물 확보를 위해 지류 하천의 제방보강, 생태하천 조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4대강 유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깨끗해진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하천(BOD 3~5)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4조원(2011년 1.2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교체·개보수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5-2) 지방재정 지원 확대 및 건전성 강화 추진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이 전년대비 7.7조원 증가(8.0%)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비세도 전년대비 7.3% 증가한 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2 • 지방이전재원 주요 변동 내역

(단위:억원, %)

	2011년	2012년	증감	%
계	959,051	1,035,842	76,791	8.0
◇ 지방교부세	301,904	330,295	28,391	9.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2,831	384,473	31,642	9.0
◇ 국고보조금	304,316	321,074	16,758	5.5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2011.3.22)으로 시행된 취득세율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지원한다. 2011년 중 지방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분 2.1조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향후 재정위험 사전예측을 위해 전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등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6) 내수기반 확대

(6-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을 운용하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 및 성장유망 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확대·운용(창업자금 : 1.2 → 1.4조원)하고, 지원방식도 단순 융자 및 보증을 벗어나 보험, 투자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보증공급 규모는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조정(신·기보 일반보증 : 54.2 → 53.0조원)해나간다.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우수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R&D는 전년대비 14% 수준으로 확대 투자(6,288 → 7,150억원)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녹색·첨단융합·제조 기반 등 중소기업형 유망분야 R&D를 맞춤형으로 중점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R&D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맞춤형 인력공급 강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마케팅 촉진 및 판로지원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을 25회에서 40회로 대폭 확대하고, 공동 A/S 지원 품목수도 120개에서 150개로 넓혀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 한다. 또한, 지방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확충(시범사업), 중소기업전용 TV 홈쇼핑 개국 (2012.1.7일), MRO종합 지원센터 신규 설립 등 중소기업 마케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 목동 HIT500매장

한편, 산업체 수요를 부합하여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중소

기업형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153개에서 200개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장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자립기반 마련을 강화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등에 대응하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골목수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사업(현대식 점포 개량사업)을 2012년까지 1만개 확충하여 골목수퍼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고, 전통시장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관광 및 테마형 지역 특화 시장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폐업시 구직급여와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며,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신규로 추진된다.

표 2-3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합 계】	8,526	11,635	36.5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7,157	7,615	6.4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	(247)	(357)	(44.5)
(시장경영혁신지원)	(411)	(488)	(18.7)
(소상공인 융자자금 지원)	(4,000)	(4,250)	(6.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800)	(1,730)	(△3.9)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654	순증

(6-2) 서비스산업 선진화

● 한국인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3D 등 차세대콘텐츠 분야로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향후 콘텐츠산업을 견인할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3D 제작시설 확충,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e-스포츠컴플렉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표 2-4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 문화콘텐츠 지원	4,868	5,343	9.9
(영화 해외진출지원)	(20)	(63)	(215.0)
(한류 진흥)	(18)	(71)	(301.6)
(대중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190)	(294)	(54.7)
(게임산업 육성)	(168)	(218)	(29.5)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	(110)	(순증)

● 전통문화와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화 중점 지원

서원·향교, 전통한옥 등 고유문화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별로 新관광자원화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서울 4대문안의 관광인프라를 구축(2012년 신규 60억원)하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국민의 높아진 여가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즉,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산업 등을 융복합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용자 지원(2011년 2,131억원 → 2012년 2,462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2-5 ● 관광산업 지원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 전통문화 보존·활용 지원	950	1,648	73.5
(전통문화체험 지원)	(135)	(226)	(67.4)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18)	(82)	(355.6)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32)	(39)	(21.8)
- MICE 산업 육성	139	166	19.4

● 의료서비스 산업 글로벌화 지원 확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통역사 양성을 확대하고,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및 라이선싱 및 글로벌 인허가 전문가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서비스

표 2-6 ●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6,000	5,998	-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강화)	1,370	1,500	9.5
(한국의료 마케팅)	3,556	3,426	△3.7
- 보건산업 기술이전·산업체 활성화 지원	2,868	5,418	88.9
- 의산업 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	2,000	순증

(6-3) 돈버는 농어업 육성

글로벌 수출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등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등 농식품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양식어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혁신모델 지원·확산을 통한 강소농을 육성(2015년까지 10만 강소농 육성)하는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한·EU FTA 발효(2011.7월), 한·미 FTA 비준(2011.11월)을 계기로 농축어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대책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농어민의 피해보전 강화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85→90%)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을 확대한다. 또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배수개선·수리시설 개보수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축사·원에·과수·양식 시설현대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경제 분리 등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에서 차입하는 3조원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이차차액을 지원하고, 2조원은 현물로 출자하여 총 5조원을 지원하되, 농협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의 경영개선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표 2-7 • 돈버는 농어업 육성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합 계】	24,835	32,086	29.2
- Golden Seed 프로젝트	-	25	순증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248	290	16.7
- 선도농가 경영육성(강소농)	-	115	순증
- 피해보전직불금	265	630	137.7
- 수리시설 확충	6,130	8,300	35.4
- 시설현대화(축사·원에·과수·양식)	2,450	4,109	67.7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065	1,240	16.4
- 농협 사업구조 개편	-	1,500	순증

(7)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7-1) 저탄소 녹색사회 · 녹색산업

2012년부터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 그리고, 산업체 에너지절약시설설치를 위한 용자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수급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동급 가솔린차와 전기차 가격 차액의 50%를 지원하여, 2011년 800대에서 2012년 2,500대로 확대 보급한다. 동시에 전기자동차, 클린디젤차 등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지자체 및 소속기관, 전통시장, 양계장 등을 대상으로 한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지속지원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녹색산업의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한다. 2012년 신규로 해상풍력 기반구축과 부품성능검 · 인증 기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해상풍력 등 녹색산업을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해상풍력발전

(7-2)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거대과학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2011년) 100억원 → (2012년) 2,200억원)한다. 또한, 생명과학, 물리학 등 다양한 기초 연구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450억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우주, 핵융합 분야 등 거대시설·장비 소요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한국형 발사체 예산을 두배 이상 증액((2011년) 315억원 → (2012년) 684억원)하였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도 1,074억원을 지원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창의적 연구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12년에는 최초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기초연구의 핵심인 이공계 대학의 기초연구지원을 확대((2011년) 7,500억원 → (2012년) 8,000억원)하였으며,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 연구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융합 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을 증액((2011년) 889억원 → (2012년) 1,017억원)하였다.

최근 줄기세포를 활용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줄기세포가 우리경제에 핵심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관련 R&D를 확충((2011년) 601억원 → (2012년) 1,004억원)하였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글로벌 IT산업은 SW와 HW의 융합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름에 따라 SW-시스템반도체융합경쟁력강화사업(70억원, 신규) SW전문인력양성((2011년) 160억원 → (2012년) 280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장되는 SW를 되살리기 위한 SW뱅크가 신규 설립된다.



해양 플랜트

이와 함께,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디스플레이·나노·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산업선도기술사업(120억원), 나노융합2020사업(67억원)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7-3) 고등교육 투자

학생의 잠재력과 학과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정착(391억 원)시킴으로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신장하고, 국립대학 법인화를 확산하여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을 통한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총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156억원)

국립대학의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컨설팅 기능을 통해 자구노력을 강화하거나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등 지속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산학협력사업의 구조를 효율화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사업들을 통합·개편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24개교를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지역대학간 협력을 통해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문분야인 인문학(484→506억원)과 사회과학 연구(210→260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충하여 학문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2012년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4대보험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고(989억원) 처우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시간당 강의로 단가를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8) 국민안전 및 국격제고

(8-1) 자연재해 예방과 생활안전

잦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국민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연재해예방 예산을 대폭 확대(20.2%)한다.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주변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서민밀집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거 및 빗물저류시설 투자를 늘리고, 우면산 산사태 등을 교훈삼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투자를 강화하며, 기상관측시설 확충 및 방재기술 R&D 투자 확대로 재해 예방능력도 향상 할 계획이다.

표 2-8 • 재해예방 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재해예방 투자규모〉	43,494	52,292	20.2
• 하천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16,795	21,263	26.6
• 도시침수 예방	5,672	6,931	22.2
• 산사태 예방	2,316	3,066	32.4
• 재해 예방능력 향상	1,126	1,581	40.4

「통합112신고시스템」을 5개 지방경찰청에 추가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 공개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안전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방사능 오염식품의 통관차단 및 유통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통합112신고시스템 구축 : (2011년) 129억원 → (2012년) 373억원
-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 (2011년) 50억원 → (2012년) 56억원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2011년) 26억원 → (2012년) 37억원

(8-2) 국방투자 및 통일 대비

군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장병 훈련장과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충하고, 교육용탄약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북한의 국지도발과 2015년에 이루어질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K-9 자주포, 전구작전지휘시설 및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필수 핵심 전력에 투자를 강화한다.

- 교육훈련 투자 : (2011년) 3,457억원 → (2012년) 4,868억원
- 방위력개선투자 : (2011년) 9조 6,935억원 → (2012년) 9조 8,938억원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북한 이탈주민지원 재단 예산을 확대하였다.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해 통일교육을 강화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2011년 수준인 약 1조원으로 편성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경제협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2011년) 600억원 → (2012년) 750억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011년) 248억원 → (2012년) 259억원
- 남북협력기금 : (2011년) 1조 209억원 → (2012년) 1조 116억원

(8-3) 공적개발원조(ODA)

2012년에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계획(10.10월)」에 따라 2012년에는 전년대비 2,219억 원 증가한 18,688억원(ODA/GNI 0.15%)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높아진 국가 위상에 부응하여 국제기구분담금을 전년대비 1,148억원 증액한 5,540억원을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개도국 경제·사회인프라 건설에 6,152억원을, 개도국의 인력개발, 개발역량 확충 등 무상원조 사업에 6,996억원을 지원한다.

- 다자원조 : (2011년) 4,392억원 → (2012년) 5,540억원
- 양자원조 : (2011년) 12,077억원 → (2012년) 13,148억원
 - 무상원조 : (2011년) 6,030억원 → (2012년) 6,996억원
 - 무상원조 : (2011년) 6,047억원 → (2012년) 6,152억원

3 주요분야별 자원배분

(단위:조원, %)

구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 (b-a)	증가율 (b/a)
1. R&D	14.9	16.0	1.1	7.6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15.2 (6.0)	15.1 (6.2)	△0.1 (0.2)	△0.5 (0.3)
3. SOC (4대강 사업 제외시)	24.4 (21.4)	23.1 (22.8)	△1.3 (1.4)	△5.5 (6.6)
4. 농림·수산·식품 (농림)	17.6 (15.1)	18.1 (15.8)	0.5 (0.7)	2.8 (4.5)
5. 보건·복지·노동	86.4	92.6	6.2	7.2
6. 교육 (지방교육교부금)	41.2 (35.3)	45.5 (38.4)	4.3 (3.2)	10.3 (9.0)
7. 문화·체육·관광	4.2	4.6	0.4	8.8
8. 환경	5.8	6.0	0.2	3.5
9. 국방	31.4	33.0	1.6	5.0
10. 외교·통일	3.7	3.9	0.2	8.0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0.8	6.3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52.4 (30.2)	55.1 (33.0)	2.7 (2.8)	5.3 (9.4)
총 지출	309.1	325.4	16.4	5.3

| 제3장 |

분야별 투자계획

1 R&D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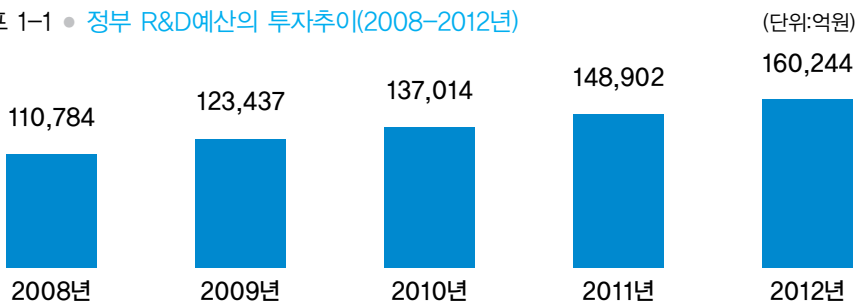
| 1-1 | 2012년 재정지원 방향

2012년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규모는 2011년 대비 7.6% 증가한 16조 24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우주·항공 등 거대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를 50%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R&D투자를 정부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그간의 R&D 분야 투자 확대 추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2012년 R&D분야 총지출 규모는 16조 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고,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래프 1-1 ● 정부 R&D예산의 투자추이(2008-2012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제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민간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 R&D의 투자효율성을 더욱 제고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가 어려운 한국형발사체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등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과학벨트 등 기초연구 분야의 지원도 강화한다.

표 1-1 •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율
R&D 분야 계	148,902	160,244	7.6%
• 기초·나노·생명 등	39,026	40,973	5.0%
• 에너지·환경 등	22,835	24,464	7.1%
• 우주항공·건설교통 등	15,740	22,361	42.1%
• 기계·제조·공정 등	18,321	16,957	△7.5%
• 정보·전자	22,972	23,829	3.7%
• 인력·장비구축 등	30,008	31,659	5.5%

또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줄기세포와 IT 융합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기술 선진화를 통한 녹색강국 건설을 위해 친환경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한편 중소기업 R&D, 질병·재난·재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이다.

● R&D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

정부는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부처 공동기획 등을 통해 유사·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예산 총액 내에서 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묶음예산제도(block funding)'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위해 개인기초연구 등 소규모 풀뿌리 연구도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R&D 투자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우수한 R&D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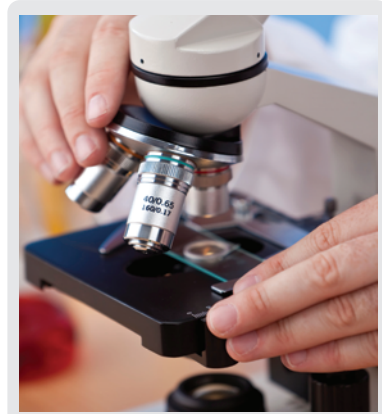
● R&D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R&D예산 중 기초·원천연구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 (2011년) 47.4% → (2012년) 50.6%

기초·원천연구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의 비중을 올해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자의 창의성과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신진연구자, 여성과학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 등의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중이온가속기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거점 마련을 위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의 융·복합화와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조직화된 소규모 집단연구의 지원도 꾸준히 유지한다.



기초과학연구

표 1-2 ● 기초·원천연구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8,802	11,470	30.3%	
- 개인기초연구지원	7,500	8,000	15.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100	2,200	2,100%	
- 집단연구육성지원	1,202	1,270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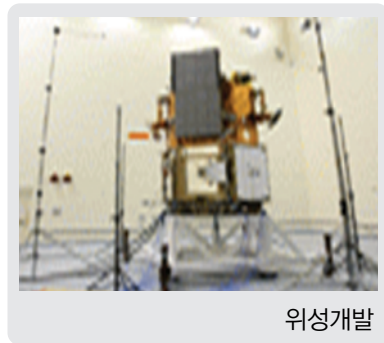
● 거대과학과 대형첨단연구 시설·장비 분야 중점 투자

미래 지향적 거대기술 분야와 대형 연구장비·인프라 구축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 (2011년) 315억원 → (2012년) 684억원

우주기술, 핵융합기술 등 국익증진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거대기술 분야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 연구장비·인프라 구축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한국형발사체(KSLV-2)와 정지궤도위성의 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우주개발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 자립기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생명과학, 물리학 등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지원하고 양성 자기반공학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성개발

표 1-3 ● 거대과학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890	1,991	123.6%	
- 4세대 방사광가속기	200	450	125.0%	
- 정지궤도위성개발	41	202	392.7%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234	515	120.0%	
-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100	140	40.0%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15	684	117.1%	

● 미래시장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과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선도기술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한다.

☞ 신성장동력 투자규모 : (2011년) 2.2조원 → (2012년) 2.8조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나노, 로봇, 바이오, SW 등 시장잠재력이 크고 선점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LED, 바이오·의료, 부품소재 등에 더하여 최근 신성장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나노융합·줄기세포·전기차·로봇 등 미래유망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융·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표 1-4 ● 신성장동력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2,588	3,504	35.4%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068	1,301	21.8%	
- 첨단융합기술개발	889	1,017	14.4%	
- 줄기세포연구지원	601	1,004	67.1%	
-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구축	30	115	283.3%	
- 나노융합2020	-	67	순증	신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기술 투자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기술 분야와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녹색기술 투자규모 : (2011년) 2.5조원 → (2012년) 3.0조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전지구적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과 기존 산업 그린화,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2009.1)’ 상의 목표(2012년 녹색기술 투자 2008년 대비 2배인 2.8조원)를 상회하는 3.0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실행전략인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2009.5)’에서 제시된 27대 중점육성 녹색기술 분야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녹색기술 인력양성과 친환경 그린에너지원 확보,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태양광 에너지

표 1-5 ● **녹색기술 개발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3,533	3,693	4.5%	
-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천기술개발	2,233	2,273	1.8%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1,260	1,300	3.2%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 부품산업 육성	40	120	200.0%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분야 지원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 R&D(중기청) : (2011년) 6,288억원 → (2012년) 7,150억원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R&D를 대폭 증액하여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고자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구매를 전제로 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창업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표 1-6 ● 중소기업 R&D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3,340	3,834	14.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206	2,325	5.4%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900	1,110	23.3%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234	399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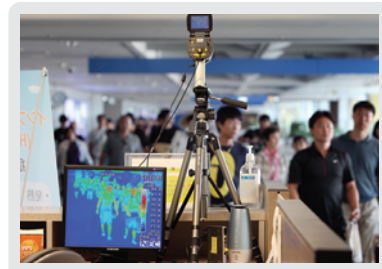
● 국민 체감형 공공복지 · 안전 분야 투자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재난·재해 예방, 식품 안전, 질병 예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복지·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재난·재해 R&D(방재청): (2011년) 182억원 → (2012년) 263억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백두산 화산감시와 같은 동아시아권의 기후변화 감시 활동 고도화를 통해 화산폭발이나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피해저감·안전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환경 모니터링 활동의 지원 범위를 넓혀 생활 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감염병 관리·대응 기술개발, 면역백신 개발, 식품안전관리 등을 확대한다.



감염병 관리대응

표 1-7 ● 공공복지·보건 관련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428	556	29.9%	
- 공공복지안전연구	108	136	25.7%	
-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	150	175	16.7%	
- 토양지하수오염방지 기술개발	140	170	21.4%	
- 관측·지진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30	45	52.4%	
- 백두산화산감시에측 및 대응기술개발	-	30	순증	신규

2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2-1 | 재정지원 방향

2012년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5.1조원 수준이다. 2012년에는 청년 창업 · 창직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컨설팅과 연계지원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시제품 제작 등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 첨단 용 · 복합,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한다. 또한, FTA 체결 확대 등에 대비하여 FTA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FTA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친환경 · 친서민을 위한 에너지 사용여건 조성

산업체들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따라 목표관리제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시장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비용보조, 시설개선 등 보편적인 에너지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표 2-1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합 계	151,604	150,913	△0.5
- 산업진흥고도화	54,389	54,402	0.0
- 무역 및 투자유치	4,491	3,719	△17.2
- 에너지 및 자원개발	50,452	48,679	△3.5
- 산업금융지원	28,815	29,485	2.3
- 산업기술지원	9,168	10,054	9.7
- 산업중소기업일반	4,289	4,574	6.7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산업진흥·고도화부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차세대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중소기업·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력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2011년) 54,389억원 → (2012년) 54,402억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 첨단 융·복합,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주력산업에 대한 부품·소재개발, 원천기술 확보에도 중점 투자한다. 이를 위해 R&D자금 투자,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IT 융·복합

뿌리산업진흥및첨단화법의 본격적인 시행(2012년1월)을 계기로 지원시스템 구축, 특화단지 시범조성, 용접/접합지원, 기술혁신센터 구축 등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자금, 경영컨설팅 및 해외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기반, 2·3차 협력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수출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 설립,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학교 개설지원 등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경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시제품 제작 등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창업프로그램과 창업지원기관을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지원 기관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적인 창업분위기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일반인 창업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등에 대응하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자립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골목수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들가게 사업(현대식 점포 개량사업)을 2012년까지 1만개 확충하여 골목수퍼의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또한, 전통시장에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유통규모를 2012년에는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문화관광 및 테마형 지역 특화시장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서귀포 매일시장 상인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FTA 체결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신흥시장에 대한 개척을 지원한다.

☞ (2011년) 4,491억원 → (2012년)3,719억원 (△17.2%감소)

FTA 체결확대에 대비하여 FTA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제공시스템, 중앙 및 지역별 FTA무역지원센터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융자, 컨설팅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촉진을 위해 KOTRA를 통한 해외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사업 수요가 높은 공동물류센터, 해외지사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KOTRA의 해외지사 (KBC: Korea Business Center)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늘려나간다.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친환경·친서민의 에너지 사용여건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및 목표관리제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2011년) 50,452억원 → (2012년) 48,679억원 (△3.5%감소)

2012년부터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관리대상 기업들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를 확대한다. 특히 중소관리업체의 감축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중소관리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그린크레딧¹⁾ 사업을 추진한다.

1) 그린 크레딧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금·기술을 지원하고, 감축실적의 일부분을 이전 받아 목표관리 실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LED 및 스마트그리드를 확대 보급한다. 풍력발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새만금대형풍력 시범단지를 지속 지원하고, 해상풍력개발 및 부품성능검사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및 주택단열·창호시공사업을 대폭 지원한다. 소외지역에 LPG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농어촌·도서지역에서도 전기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가발전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 산업금융지원부문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성장유망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 (2011년) 28,815억원 → (2012년) 29,485억원 (2.3%증가)

청년들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관심이 많은 아이디어·지식서비스 분야 및 창업 초기단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조성하여 기존의 정책자금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한다.

첫째로, 민간은행과 자금·컨설팅을 매칭·연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800억원(민간은행 자금 포함시 1,600억원) 규모로 운용함으로써 최초로 정책자금 운용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로 창업 실패시 창업노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채무상환금의 일부(최대 2천만원)를 조정해 주는 용자상환금 조정형 용자자금을 시범적으로 500억원 지원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마지막으로 민간 개인투자(엔젤투자)와 매칭·지원하는 정부의 직접투자(지분참여 등)를 700억원 규모로 모태펀드에서 운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투자기반을 확충해나간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창업 초기기업 및 성장유망 기업 중심으로 확대·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방식도 단순 융자 및 보증을 벗어나 보험, 투자 등으로 다양화 한다. 특히, 거래기업의 부실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보험시장을 통해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험인수총액을 6조원에서 7조원 규모로 확대 운용한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보증공급 규모는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기술 지원부문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용화, 융·복합, 창업성장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 (2011년) 9,168억원 → (2012년) 10,054억원 (9.7%증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기술개발 여건을 감안, 맞춤형 기술개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한다.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동종 및 이종기술간의 융·복합형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역량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확산하기 위해 제품 구매를 전제로 투자하는 대기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간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생관계를 조성한다.

3 SOC 분야

| 3-1 | 재정지원 방향

2012년 SOC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3.1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5.5%(△1.3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금년에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외한 투자규모는 22.7조원으로 작년의 21.0조원 보다 8.2%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국가기간 교통망 지원 및 녹색교통 확충

물류·여객 수송의 근간이 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기착공한 계속사업의 적기완공 지원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화도~양평),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를 신규 착공한다. 철도는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적기개통을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한다.

녹색교통 구현을 위해 철도투자를 크게 확대함에 따라 도로와 철도의 투자비중은 2011년 1.4:1에서 2012년 1.3:1로 조정된다.

● 홍수예방 및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하천투자 지속

홍수예방, 물 확보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 유역은 홍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4대강외의 지류하천은 아직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취약한 구간이 많아 제방보강을 지속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안전투자 강화**

최근 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도로 등 도로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 사고예방을 위해 철도안전 보강 및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국책사업 뒷받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에서 올림픽경기장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철도 등 필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한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SOC) : (2011년) 4,868억원 → (2012년) 5,346억원

* 30대선도프로젝트 : (2011년) 40,417억원 → (2012년) 45,372억원

표 3-1 ● SOC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합계	244,406	230,926	△5.5
(4대강, 여수엑스포 제외시)	(209,501)	(226,676)	(8.2)
○ 교통 및 물류	167,989	174,755	4.0
- 도로	74,487	77,614	4.2
- 철도·도시철도	54,055	61,141	13.1
- 해운·항만	16,333	16,358	0.2
- 항공·공항	679	698	2.8
- 물류 등 기타	22,434	18,945	△15.6
○ 국토 및 지역개발	76,417	56,170	△26.5
- 수자원	50,182	29,020	△42.2
- 지역및도시	16,424	16,845	2.6
- 산업단지	9,811	10,305	5.0

| 3-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도로 부문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국도는 혼잡구간을 중심으로 기 시행중인 사업의 적기 완공을 중점 지원하는 등 투자효율화를 추진한다.

☞ (2011년) 74,487억원 → (2012년) 77,614억원 (4.2% 증가)

물류경쟁력 제고, 국민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해 국가기간 교통망인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및 중부내륙 고속도로(여주~양평)는 금년중 개통하고, 중부내륙 고속도로(양평~화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는 신규 착공한다.



고속도로 건설

국도는 그 동안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고, 고속도로 등과 유사·중복투자 지적이 있어온 만큼 신규 착공사업은 최소화하고 기시행중인 사업의 적기 완공에 중점 투자한다.

* 국도 신규사업수 : (2010년) 15개 → (2011년) 8개 → (2012년) 10개

한편, 국민 불편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병목지점 개선, 교차로 입체화, 위험구간 개량 등 기존 국도의 유지·관리 예산은 확대 지원한다.

표 3-2 ● 도로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A+B)	74,488	77,614	4.2	
국토해양부(A)	72,033	75,676	5.0	
- 고속도로	11,474	14,469	26.1	
- 국 도	38,794	37,167	△4.2	
- 민자도로	4,151	5,899	42.1	민자고속도로 지원
- 지자체도로	8,544	8,358	△2.2	국지도, 광역도로 등
- 국도 유지·관리	9,070	9,783	7.9	
행정안전부(B)	2,455	1,938	△21.0	

● 철도부문

기후 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철도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국 반일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고속철도 투자를 확대한다.

일반철도에 대한 투자는 국가 주요시책과 연계한 사업과 K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 (2011년) 44,338억원 → (2012년) 50,876억원 (14.7% 증가)



KTX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도심철도 통과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호남고속철도도 2014년에 오송~광주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인근의 고속철도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수서~평택)을 2014년 완공 목표로 지원한다.

일반철도는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선전철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사업의 신규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주변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광역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수원~인천 사업은 오이도~송도 구간을 2012년 6월에 우선 개통하고, 오리~수원 사업은 기흥~방죽 구간을 2012년 말에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 일반 및 광역철도 개통건수 : (2011년) 6건 → (2012년) 8건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 일반철도의 시설개량비도 대폭 증액하였다. 또한, 철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역사 내 승강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역사 자전거주차장 및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 연계교통 시설도 확충한다.

*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400억원 (신규)

* 일반철도 시설개량 : (2011년) 1,333억원 → (2012년) 1,900억원

표 3-3 ●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44,338	50,876	14.7	
고속철도	9,000	13,850	53.9	경부·호남·수도권고속철도
일반철도	15,845	18,348	15.8	
광역철도	8,559	6,290	△26.5	
철도운영	10,934	12,388	13.3	

● 도시철도 부문

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 (2011년) 9,718억원 → (2012년) 10,265억원 (5.6% 증가)

서울지하철 7호선,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등의 사업을 2012년 완공하고, 대구지하철 3호선 및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등의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소요를 지원한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라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조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도 신규 착공한다.

저탄소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CDM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당 지자체가 책임성 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간 공동합의에 따른 부채상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표 3-4 ● 도시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9,718	10,265	5.6	
도시철도건설지원	5,883	6,490	10.3	서울9호선 등 13개 사업
도시철도경영지원	3,835	3,775	△1.5	지하철 부채상환지원 등

● 해운·항만 부문

주요 허브항의 항만배후단지, 연계교통시설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우리 수출입 화물 수송의 99.9%를 담당하는 해운·항만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2011년) 16,333억원 → (2012년) 16,358억원 (0.2% 증가)

2010년 세계 2위의 환적 컨테이너항만으로 도약한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2년에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 부두 임항철도(4.3km), 부산신항 항로증심 준설(-16m)을 완료하고 응동배후단지 조성도 지속 추진한다. 컨테이너부두



컨테이너 부두 전경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광양항에는 자체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측배후단지 조성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도권 대중국 거점항으로 개발 중인 인천신항에는 진입도로 6.8km 등을 확충한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양경찰 전진기지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2012년에 평택·당진항 등 3개항에 대한 해경선박 전용부두 설계를 착수하며,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도 착공한다.

해수면 상승과 폭풍 및 지진해일 내습 가능성에 대비하여 항만 재해방지 인프라 건설도 적극 추진한다. 울산항, 완도항 등 20여개 항의 방파제를 보강하고 마산항, 삼척항 배후 지역의 재해방지 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지속 증가하는 국제여객 수요에 대응하여 국제 여객터미널 확충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2년에 인천 남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착공하고, 대중국 신규 항로가 개설될 예정인 대산항에 대해서도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를 실시한다.



부산북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해운강국을 통한 국부창출을 목표로 해운인력 양성사업, 연안해운 활성화, 해상교통 안전 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지역 해상교통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표 3-5 ● 해운·항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6,333	16,358	0.2	
○ 신항만 개발	7,217	7,321	1.4	
- 부산항 신항	2,794	2,440	△12.7	
- 울산신항	938	1,100	17.3	
○ 주요항	2,262	2,326	2.8	
○ 일반항	2,595	2,174	△16.2	
○ 유지보수, 해운 등	4,259	4,537	6.5	

● 수자원 부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물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2011년) 50,182억원 → (2012년) 29,020억원 (42.2% 감소)

* 4대강 사업 제외시 : (2011년) 19,382억원 → (2012년) 25,815억원 (33.2% 증가)

2009년부터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한다.

이를 통해 13억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고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을 구축한다. 또한 좋은 물(Ⅱ 급수) 비중은 2009년 당초 76%에서 2012년에는 86%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생태경관 36경, 생태하천, 자전거길(1,692Km) 등의 친수공간을 마무리 하여 국민 여가생활 향상에도 기여한다.



낙동강 낙단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주요 하천시설물(제방, 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하천 유지·보수비(1,997억원)을 신규 지원하여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4대강외 하천의 정비 사업에도 금년 1.4조원을 투입(2011년 1.1조원)하여 현재 60%에 불과한 4대강외 하천의 홍수에 안전한 제방 비율(국가하천 79.4%, 지방하천 57.6%)을 매년 2~3%씩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부족한 용수 확보와 홍수에 대비한 댐 건설(한탄강 댐, 부항댐 등)을 추진하고 기존 댐의 용량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 증대 사업도 지속한다. 또한, 지역별 물 부족 해소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댐 건설

표 3-6 ●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50,182	29,020	△42.2	
광역상수도 건설	188	429	128.2	
수자원정책지원	181	186	2.8	
댐 건설	3,246	3,656	12.6	
하천정비	46,567	24,749	△46.9	
(4대강 살리기)	(30,800)	(3,205)	(△89.6)	

● 물류 등 기타 부문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해양관광 및 영토관리 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계의 해외진출 지원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확대 지원하고, 녹색 물류·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한다.

☞ (2011년) 22,434억원 → (2012년)18,945억원 (15.6%감소)

2012년 5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상전시 연출장, 엑스포타운 등 주요 시설의 완공소요를 지원(1,044억원)한다. 연안유희지 개발 등 국민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해양관광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서해접적해역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영토관리를 강화하고, 이어도 등 국가해양관측망 운영(99억원), 해양침수예상도 제작보급(75억원), 동해지진해일 관측부이 등 국가해양 관측소 증설(88억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해외건설시장 5대 강국 진입 및 1,000억불 수주달성을 위해 해외건설시장 개척 사업 및 해외건설인력 양성 등 지원을 확대(146억원)할 계획이며, 철도·연안해운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 화물수송 전환시 보조금을 지원(75억원)하고, 에코드라이브 활성화(5억원) 등 녹색물류·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구축,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보행편의구역 조성 등의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표 3-7 ●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22,434	18,945	△15.6	
-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894	1,117	25.0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4,105	1,044	△74.6	
- 국토해양 연구개발	6,091	6,133	0.7	R&D
- 국토해양 정보화	918	995	8.4	정보화
- 건설정책지원	151	204	34.8	해외건설
- 물류정책	878	298	△66.1	물류인력
- 대중교통육성	497	504	1.3	저상버스
- 자동차 및 광역교통	1,729	2,570	48.6	
- 국토해양 행정지원	4,556	4,712	3.4	
- 기타	2,615	1,439	△45.0	

●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공공기관 이전, 세종시 건설, 새만금 종합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를 지원한다.

☞ 지역및도시 : (2011년) 16,424억원 → (2012년) 16,845억원 (2.6% 증가)

☞ 산업단지 : (2011년) 9,810억원 → (2012년) 10,305억원 (5.6% 증가)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이전 기반시설 소요를 지원하고 세종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사시설 및 주요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초광역권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청(충남·경북)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도청이전 진입도로 사업도 계획대로 지원한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2011.3.16)에 따라 새만금복합도시 개발수요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영어교육 중심지 및 동북아 교육허브 조성을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기반시설에 대한 완공소요를 지원한다.

기업입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4개 국가산업단지(2009.9월 지정) 진입도로 등 78개 진입도로를 지원하여 원활한 물류수송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산업단지(공업지역 포함)의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재생시행계획 수립비를 지원한다.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건수 : (2011년) 71건 → (2012년) 78건
신규 산단 진입도로 지원건수 : (2011년) 23건 → (2012년) 26건

표 3-8 ● 지역·도시 및 산업단지 부문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 지역 및 도시부문	16,424	16,845	2.6	
- 세종시건설	7,850	8,019	2.1	중앙청사 건립 등
- 지역개발	5,670	5,826	2.8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 도시정책	1,136	1,205	6.1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등
- 국토정보관리	1,019	1,028	0.9	부동산 공시 등
- 국토지리정보원운영	749	767	2.4	
○ 산업단지부문	9,810	10,305	5.6	
- 산단진입도로	8,233	8,881	7.9	

4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 4-1 | 재정지원 방향

2012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8.1조원 수준이며, 2011년 17.6조원 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다. 2012년에는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식품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었다.

●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등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농식품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양식어업을 육성하고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농가 경영혁신모델 지원 · 확산을 통한 강소농을 육성하는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농축어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FTA에 따른 농축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2008~2017)간 총 54조원(재정 24.1조원, 세계 29.8조원 등)의 한 · 미 FTA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12년에는 한 · EU FTA 발효(2011.7월), 한 · 미 FTA 비준(2011.11월)을 계기로 농축어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을 확대하고, 축사 · 원예 · 과수 · 양식 시설현대화, 수리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규 도입하여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농지연금, 농어업 재해보험 등 농어민의 자립형 복지증진 사업도 확대한다.

●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농수산물의 품목별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한다. 또한,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B2B 거래 등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유통구조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지원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이 농어업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외식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 관련 기업·연구소들이 입주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 농어업 보조금 지원 내실화

농어가의 자기책임성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비료, 물류장비 지원 등 개별 경영체에 대한 투입재 및 시설 보조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융자(이차보전)로 전환한다. 아울러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사업체계를 단순화한다.

표 4-1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합계	176,354	181,322	2.8
- 농업·농촌	139,988	142,455	1.8
- 수산·어촌	13,052	13,543	3.8
- 임업·산촌	16,953	18,443	8.8
- 식품업	6,361	6,881	8.2

| 4-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농업·농촌 부문

종자개발·R&D 투자 확대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FTA를 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유통개선과 가축방역·재해대비 등 농림수산자원의 위험관리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2011년) 139,988억원 → (2012년) 142,455억원 (1.8% 증가)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R&D 투자를 확대한다. 영세한 영농규모, 농산물 수요 정체 등 우리 농식품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잉여에너지 저장기술 등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발효·저탄소 가공 등 농식품 품질유지 유통기술 개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첨단농업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수출유망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취약한 민간기업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및 방사선육종연구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발전 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가축농이 선도농가(강소농)로 성장할 수 있도록 품목·지역별 혁신모델을 집중 육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을 올해부터 신



원예 시설



축사 시설

규로 추진한다.

한·EU FTA 발효(2011.7월), 한·미 FTA 비준(2011.11월)을 계기로 농축어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대책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농어민의 피해보전 강화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85→90%)하고,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 등에 긴요한 배수개선·수리시설 개보수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축사·원예·과수·양식 시설현대화를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료산업 지원, 종축장 전문화 등 축산발전기금 사업도 확대 지원한다.

그리고,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밀·콩·보리 등 19개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발농업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상향 조정하고,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부담률을 축소(30→20%)하여 직불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작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수급의 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에 대한 계약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생산량의 12→20%)하고, 고추·마늘 국내산 양념류 비축을 신규로 지원한다.



고랭지 노지채소



산지유통센터

또한,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B2B 거래 등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유통구조 개선도 적극 지원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시설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올해 미국에 있는 곡물 유통회사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곡물관측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지원한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경제 분리 등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총 5조원의 자본금을 지원한다. 농협에서 차입하는 3조원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2조원은 현물로 출자하되, 농협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의 경영개선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의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병예방 및 제어에 관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축산 방역·검역 및 축산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축산법」을 개정(2011년 12월)하여 방역시설 등을 조건으로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전업농 이상은 50%, 전업농 미만은 100%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자립형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고령농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된 농지연금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50→61개)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그리고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확대하여 어려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36천명→42천명)한다.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학자금 지원대상을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까지 넓힌다.

표 4-2 ● 농업·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39,988	142,455	1.8	
- 농식품 R&D	8,625	9,089	5.4	
- 종자산업 육성	834	925	10.9	
- 선도농가(강소농) 경영 육성	-	115	순증	
- 피해보전직불금	265	630	137.7	
- 발농업직불금	-	624	순증	
- 수리시설 확충	6,130	8,300	35.4	
- 시설현대화 (축사·원예·과수·양식)	2,450	4,109	67.7	
- 농산물 비축지원	4,740	5,592	18.0	
- 산지유통종합자금 (계약재배)	900	1,520	68.9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200	422	111.0	
- 농협 사업구조 개편	-	1,500	순증	

● 수산·어촌 부문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위생적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 (2011년) 13,052억원 → (2012년) 13,543억원 (3.8% 증가)

연안수산자원의 지속생산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및 건강종묘, 방류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의 수산자원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도모한다.

경제발전과 소득증가·건강식품 선호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잡는 어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가·지방어항 건설 및 관리, 어선원 및 어선보험 운영 등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또한 중국 등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참다랑어·갯벌참굴·전복 등 고부가가치 수출전략 품종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 지원하는 등 기르는 어업을 육성한다.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수산식품 개발을 도모한다. 위판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거점별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를 건립한다. 또한 노후화된 노량진 수산물 도매 시장 시설현대화 및 지역별로 특화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표 4-3 • 수산·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3,052	13,543	3.8	
-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533	587	10.1	
- 자율관리어업 육성	128	131	2.3	
- 국가어항건설및관리	1,444	1,538	6.5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88	151	71.6	
-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FPC) 건립	-	72	순증	

● 임업 · 산촌 부문

선진 녹색국가 기반마련을 위해 산림자원의 확충과 보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며, 산림휴양인프라의 조성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 (2011년) 16,953억원 → (2012년) 18,443억원 (8.8% 증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산물수집 확대 등으로 숲가꾸기를 내실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산림재해방지조림 등을 통해 조림사업을 내실화한다. 또한 산림사업의 기반이 되는 임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기계·장비 보급의 확대를 통해 목재생산 효율성을 강화한다.



숲가꾸기 : 가지치기



숲가꾸기 : 산물수집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지속한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확대, 산불진화시스템 강화 등으로 산불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생활권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확충하고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산사태예방능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림다양성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산림분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서비스 제공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경영지원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청정임산물의 생산·유통 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휴양공간 확충 및 운용을 위한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모·장애인 숲체험 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산림휴양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표 4-4 ● 임업·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6,953	18,443	8.8	
- 정책 숲가꾸기	2,451	2,473	0.9	
- 조림	661	720	8.8	
- 임도시설	1,141	1,198	5.0	
- 사방사업	1,790	2,337	30.6	
- 산불방지대책	495	572	15.6	

● 식품업 부문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농어업 육성을 위한 수출기반 확충 및 시장개척을 중점 지원한다.

☞ (2011년) 6,361억원 → (2012년) 6,881억원 (8.2% 증가)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시장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식품인력 양성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식품기업의 애로접수·상담, 기업진단·컨설팅,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성장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수출전략 품목 위주로 수출기반 확충과 시장개척을 중점 지원한다. 전문물류업체를 선정하여 수출업체의 공동 물류이용을 지원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수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 식품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식품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는 핵심 지원시설에 대한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며, 글로벌 선도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지역별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고, 한식세계화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 지원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한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HACCP)을 보다 활성화하고, 방사능·중금속 등과 같은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위험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식품안전 위생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식품외식종합 융자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표 4-5 ●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6,361	6,881	8.2	
농식품유통교육지원	-	20	순증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40	41	1.3	
농식품해외시장개척지원	298	314	5.4	
우수외식업지구육성	-	12	순증	
농식품안전사고및긴급대응	7	16	128.6	
식품외식종합자금	700	1,600	128.6	

5 보건·복지분야

| 5-1 | 재정지원 방향

2012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92.6조원으로 2011년 86.4조원보다 7.2%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는 맞춤형 사람희망예산을 27.4조원 규모로 집중 지원하여 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였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92.6조원이다. 전년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은 7.2%로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훨씬 높고,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5%로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 예산 외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교육예산으로 분류되나 사실상 복지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예: 국가장학금, 만 5세아 누리과정) 등을 포함하면 복지예산 실질 규모는 훨씬 커진다.

● 맞춤형 사람희망예산 집중 지원

정부는 전체 복지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 서비스로 선정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애인 및 전·의경, 국가유공자 등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도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27.4조원이 투입된다.

표 5-1 ●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합 계	863,926	926,305	7.2
□ 사회복지분야	788,926	847,715	7.5
○ 기초생활보장	75,240	79,100	5.1
○ 취약계층지원	13,427	13,946	3.9
○ 공적연금	281,833	312,678	10.9
○ 보육·가족·여성	28,759	33,847	17.7
○ 노인·청소년	38,759	40,510	4.5
○ 노 동	126,180	131,242	4.0
○ 보 훈	38,737	40,541	4.7
○ 주 택	180,536	190,062	5.3
○ 사회복지일반	5,455	5,789	6.1
□ 보건분야	75,000	78,589	4.8
○ 보건의료	15,599	16,039	2.8
○ 건강보험	57,102	60,113	5.3
○ 식품의약품안전	2,299	2,437	6.0

| 5-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한다.

☞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2011년) 143.9만원 → (2012년) 149.6만원

올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한다.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

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작년 월 143.9만원(4인가구)에서 149.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의료급여 수급자도 올해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 67만명에게 매 2년마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신규 54억원). 또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가구에 대해 부교재비 구입을 위한 교육급여를 신규 지원한다(9.5만명, 신규 27억원).

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근로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1.5→1.8만 가구)하고 근로소득장려금도 확대 지원(월 206→259천원)한다.

표 5-2 ●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75,240	79,100	5.1	
• 의료급여	36,718	39,812	8.4	
• 희망키움통장	296	374	26.4	
• 자활사업	4,203	4,430	5.4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한다.

☞ 노인 맞춤형 일자리 : (2011년) 20만명 → (2012년) 22만명

☞ 기초노령연금 : (2011년) 379만명 → (2012년) 386만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11년) 30.1만명 → (2012년) 32.7만명

☞ 장애인활동지원 : (2011년) 5만명 → (2012년) 5.5만명

근로를 통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를 확대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양등급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야(사회공헌형) 일자리를 17.6→19.5만개로 늘리고 양질의 민간분야(시장진입형·시장자립형) 일자리를 2.4→2.5만개로 확대하여 총22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수급자가 2011년 379만명에서 2012년 386만명으로 늘어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 역시 2011년 30.1만명에서 2012년 32.7만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대상자를 2011년 5만명에서 2012년 5.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뇌병변·자폐 등이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적응 제고 등을 위하여 부모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5백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확대하며, 시각장애인안마사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표 5-3 ● 노인·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52,186	54,456	4.3	
• 노인일자리	1,642	1,831	11.5	
• 기초노령연금	28,253	29,665	5.0	
• 노인장기요양보험	4,603	4,879	6.0	
• 장애인활동지원	777	3,099	299.0	

●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목표로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의 출산 및 보육 여건의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

☞ **2012년부터 0~2세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0~2세의 경우 소득하위 70%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115만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취학전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장애 아동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주40시간제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보육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3천명 확대 지원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일하기센터를 9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표 5-4 ●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28,759	33,847	17.7	
• 영유아보육료	19,346	23,913	23.6	0~2세무상보육
• 유아휴직급여	2,125	3,415	60.7	
• 아이돌보미 지원	402	435	8.1	영세아돌봄 지원 확대 (소득하위 70%→전계층)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466	518	1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 인력 확충(453→653명)

● 노동 부문

일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유휴인력의 고용기회 확대를 중점 지원한다.

☞ (2011년) 126,180억원 → (2012년)131,242억원 (4.0% 증가)

2012년부터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신규 지원(2,654억원)하고,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폐업시 구직급여와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상담-훈련-취업알선」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5→7만명)하고, 청년과 장년에게 직업훈련을 전제로 최대 31.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대폭 확대(32→40천명)한다.

산재급여 지원을 확대(38,159→38,915억원)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 중점 투자한다.

표 5-5 ● 노동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26,180	131,242	4.0	
○ 예 산	13,156	16,670	26.7	
• 취업성공패키지	574	1,396	143.3	취약계층 취업지원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	2,654	순증	사회보험료 지원
○ 기 금	113,024	114,572	1.4	
• 고용보험기금	60,462	61,070	1.0	고용안정 지원
• 산재기금	46,590	47,505	2.0	산재급여 지원
• 임채기금	2,936	2,818	△4.0	체당금 지원
• 장애인기금	2,201	2,289	4.0	장애인 고용촉진
• 근복기금	835	779	△6.7	근로자 복지지원

● 국가보훈 부문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에 따른 차등보상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한다.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 (2011년) 38,737억원 → (2012년) 40,541억원 (4.7%증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단가를 4% 인상* 하고 1급 중상이지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전년도에 비해 3배**로 인상하여 희생정도에 따른 차등보상을 강화한다.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중상이지(상이1급 및 2급)에 대해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3% 인상***한다.

* 상이지(6급2항 기준) : (2011년) 946천원 → (2012년) 984천원

** 상이 1급1항~3항 : (2011년) 312천원~94천원 → (2012년) 1,011천원~304천원

*** 상이 1급~2급 : (2011년) 1,977천원~614천원 → (2012년) 2,036천원~632천원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적극대응하고 유가족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남부권에 이어 중부권, 제주권 국립묘지 추가조성하고 대전 현충원 및 이천호국원에 대한 묘역확충을 지원한다.(2011년 155억원 → 2012년 265억원)

영천메모리얼파크(19억원), 경북 독립운동 테마파크(7억원), 호국보훈의 불꽃(5억원) 등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육성한다. (2011년 135억원 → 2012년 233억원)

표 5-6 ● 국가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38,737	40,541	4.7	
○ 예 산	37,172	38,917	4.7	
• 보훈급여금	23,961	25,680	7.2	단가4~31.8%
• 진료비	4,271	4,525	5.9	
• 안장시설지원	155	265	71.0	
○ 기 금	1,564	1,624	3.8	
• 노후복지,복지시설	255	328	28.6	

● 주택 부문

서민·중산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 보금자리주택 건설: (2011년) 95,033 → (2012년) 100,535억원(5.8% 증가)

☞ 주택구입·전세자금: (2011년) 57,000 → (2012년) 61,500억원(7.9% 증가)



서울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8만호, 분양주택 7만호 등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부담 가능하도록 60㎡미만 소형주택의 공급비중을 공공임대주택은 80%, 공공분양주택은 70%로 각각 확대하고, 단기간 내에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2만 9천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퇴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자활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주택자금 유형별로 최대 2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0.5~1%p의 금리 인하, 최대 2천만원의 대출한도 상향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 4.2%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1년 대비 4,500억원이 증가한 6조 1,500억원을 주택기금에 배정하였다.



전세임대주택 전경

저소득계층이 도심내에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2만 5천호를 신규 공급한다. 특히, 대학생용 1만호(수도권 6천호, 지방 4천호)는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10~17만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한편, 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난방시스템 개선, 공동구 배관교체 등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표 5-7 ● 주택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180,536	190,062	5.3	
○ 주택기금(소계)	178,129	187,555	5.3	
• 보금자리주택건설	95,033	100,535	5.8	
• 주택구입·전세자금	57,000	61,500	7.9	
○ 일반회계(소계)	2,407	2,508	4.2	
•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670	765	14.2	
• 재정비축진사업지원	500	850	70.0	

● 공적연금 부문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 급여 지급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 **공적연금 규모: (2011년) 28.2조원 → (2012년) 31.3조원(10.9% 증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연금별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크게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2011년 322만명에서 2012년 346만명으로, 공무원연금은 2011년 32만명에서 2012년 35만명, 군인연금은 2011년 7.9만명에서 2012년 8.2만명, 사학연금은 2011년 4.1만명에서 2012년 4.5만명으로 수급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11년 48.5%에서 2012년 48.0%로 하향 조정(2009년부터 매년 0.5%p 감소하여 2028년에 40%수준)되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한다.

표 5-8 ●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연금수급자
합계	281,833	312,678	10.9	
• 국민연금급여	103,598	118,419	14.3	321.5→345.9만명
• 공무원연금급여	92,035	104,347	13.1	32.3→34.5만명
• 군인연금급여	23,516	25,066	6.6	7.9→8.2만명
• 사학연금급여	17,908	18,918	5.6	4.1→4.5만명

● 보건의료 ·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응급 ·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의료이용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보건분야 재정규모 : (2011년) 75,000 → (2012년) 78,589억원 (4.8% 증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16개 시도별로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한다. 2011년 최초로 도입한 응급환자 전용 헬기를 내륙산간지역에 2대 추가배치할 예정이다.



의료피해의 신속한 해결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운영을 지원한다.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성 식중독균 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1년 31억원에서 2012년 69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의약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 운영을 지원한다.

표 5-9 ● 보건의료·건강보험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연금수급자
합계	75,000	78,589	4.8	
• 보건의료	15,599	16,039	2.8	
• 건강보험	57,102	60,113	5.3	
• 식품의약품안전	2,299	2,437	6.0	

6 일자리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총 10.5조원으로 2011년보다 10% 확대된다. 新일자리 개척, 일하는 복지를 위해 「4대 핵심 일자리」에 집중 투자하고,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를 중점 지원한다.

☞ (2011년) 94,724억원 → (2012년) 104,947억원 (10.8% 증가)

●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립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2011년 9.5조원에서 2012년 10.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하였다.

● 「4대 핵심일자리」중점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등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4대 핵심일자리 예산을 39% 증액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 지원일자리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56만명으로 편성하였다.

표 6-1 ● 일자리 예산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중복부분 제외)	94,724	104,947	10.8	
① 4대 핵심 일자리	14,397	20,055	39.3	
② 재정지원일자리	89,578	96,279	7.5	
- 직접일자리 창출	23,651	25,127	6.2	
- 고용서비스 인프라	65,927	71,152	7.9	
③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654	순증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4대 핵심일자리

새일자리 개척을 위해「4대 핵심일자리」를 2011년 대비 39.3% 확대한다.

☞ (2011년) 14,397억원 → (2012년) 20,055억원 (39.3% 증가)

「4대 핵심일자리」는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도전정신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열린 고용사회를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분야, 일하는 복지효과가 큰 분야의 일자리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2,000억원)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고졸자에 대해 「재학-구직-취업」단계별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와 1석3조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한다.

표 6-2 ● 4대 핵심 일자리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4,397	20,055	39.3	
① 청년 창업·창직 활성화	2,350	4,980	111.9	
②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	5,114	6,520	27.5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1,305	2,199	68.5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1석3조)	5,629	6,356	12.9	

● 재정지원 일자리

▶ 직접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는 2011년 대비 2만명 확대된 56만명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외할 경우 4만명 증가한 수준이다.

☞ (2011년) 541천명 → (2012년) 564천명 (23천명, 6.2% 증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 사업의 성과가 좋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확대(3.2→4.0만명)하였다. 특히, 고졸 청년인턴 인원을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늘려 고졸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였다.

2011년 종료 예정이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지역고용 사정을 감안하여 2012년까지 2만명 수준으로 연장 지원한다.

장애인·노인 등은 복지서비스 수혜,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제공, 부양가족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여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1년 16.7만 명에서 2012년 17.6만 명으로 확대한다.

일을 통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2011년 20만명에서 2012년 22만명으로 2만명 확대한다.

표 6-3 • 직접일자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23,651	25,127	6.2	
- 자활사업	3,763	3,969	5.5	
- 장애인활동지원	1,928	3,099	60.7	
- 숲가꾸기	2,938	2,780	△5.4	
- 노인일자리 운영	1,467	1,649	12.4	
- 사회적기업육성	1,503	1,648	9.7	
- 중소기업청년인턴	1,456	1,500	3.0	
- 지역공동체일자리	1,244	532	△57.2	

▶ 고용서비스 인프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분야를 확대하여 구직자들이 가장 준비된 상태로, 가장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1년) 65,927억원 → (2012년) 71,152억원 (7.9%증가)

2012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2011년보다 7.1% 증가한 1조 2,278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대기업 위주의 사업주 재직자 훈련은 축소하고, 고졸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자 훈련은 확대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내일배움카드제」를 2011년 2,320억원에서 2012년 3,273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을 확대(19천명→24천명)한다.



국제기능올림픽 참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2만명 확대(5→7만명)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한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과 창직으로 연계하기 위해 창조캠퍼스를 2011년 20개소에서 2012년 4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2011년도 육아휴직 급여 확대(50만원 → 임금 40%, 50~100만원)에 따라 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을 4,111억원에서 6,1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2012년부터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80→90%)에 따라 이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2,000억원 신설 등으로 창업지원은 2011년 대비 124% 대폭 확대된 반면,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구직급여는 3조 3,772억원에서 3조 2,924억원으로 축소된다.



창조캠퍼스 아이디어 공모

표 6-4 ● 고용서비스 인프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65,927	71,152	7.9	
- 직업능력개발훈련	11,465	12,278	7.1	
- 고용서비스	3,792	4,371	15.3	
- 고용장려금	9,369	11,537	23.1	
- 창업지원	1,941	4,354	124.3	
-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39,360	38,612	△1.9	

2012년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안전망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2012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1/2 ~ 1/3을 지원한다.

2012년에 2,654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며, 2월부터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7월 전국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층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4개월간 31.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직업훈련을 참여를 전제로 지원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요건, 지원 대상 등은 1분기 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2011년까지는 5인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가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50인 미만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으며 폐업시 구직급여와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 초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보험료 수입과 합쳐 약 39억원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게 된다.

7 교육 분야

| 7-1 | 재정지원 방향

2012년 교육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5.5조원 수준이며, 2011년 41.2조원 보다 10.3% 증가한 수준이다. 2012년에는 공교육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국가장학금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강화 및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서민·중산층의 학비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내실화

국가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1.75조원)을 도입한다. 또한, 학자금 금리도 대폭 인하(4.9 → 3.9%)하고 긴급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일시적 생계곤란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만 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공교육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

내국세 증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35.3→38.4조원) 재원으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이라는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특히, 취학직전 만 5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유아단계의 기초교육을 강화하며,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 공교육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대학의 체질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상시적인 부실대학 퇴출시스템 구축 및 대학 평가인증제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질높은 수 학권을 보장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체질개선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과 2단계 연 구중심대학(BK21) 육성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및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

마이스터고의 취업계약 입학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근로자가 학 업 중단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확대를 지원할 것이다. 또 한,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촉진으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교육분야 ODA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교육 지원을 내실화하여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7-1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합 계	412,338	454,911	10.3
- 유아 및 초·중등	354,823	385,549	8.7
- 고등 교육	49,769	62,208	25.0
- 평생·직업교육	6,514	5,948	△8.7
- 교육일반	1,232	1,206	△2.0

| 7-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5세 누리과정'을 통해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공교육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11년) 354,823억원 → (2012년) 385,549억원 (8.7% 증가)

'12년에는 취학 전 5세아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다. 학교에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1인당 36 → 42만원) 및 대상 인원(차상위계층 40% → 70%)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든 학생에게 지원한다.

또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2010년에 첫 시행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과목별·학생 수준별 학업성취도에 대응한 교과교실제를 확대(1,618 → 2,200개교)할 계획이다. 현재 무료제공 중인 EBS 수능 강의의 품질을 향상시켜 전체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 대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의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엄마봄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한다.(1,000→1,700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정 교과용 도서 개발 단가를 인상(6→7천만원)하여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교과용도서 감수와 수정보완 및 가격사정을 내실화하여 국정 도서 뿐만 아니라 검인정 도서의 질적 개선도 같이 도모한다. 그리고, 교원양성기관평가 강화사업을 지속 추진(10→13억원)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한다.(133→137명) 이와 더불어 장애 대학생이 보통 학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교원지원시스템을 기존 청각 장애에서 시각, 지체, 뇌병변 장애까지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세입 증가 전망에 따라 2011년 35.3조원보다 약 3조원 수준 증가한 38.4조원이 될 전망이다.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수 학습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지원, 학교재정지원, 지방채 및 BTL 상환, 인건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표 7-2 ●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352,831	354,847	9.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4,823	385,549	8.7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106	131	23.3	
- 교원양성기관평가 강화사업	10	13	26.5	
- 장애학생 교육 지원	61	66	7.3	

● 고등교육 부문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1.75조원)을 도입하는 등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등을 통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11년) 49,769억원 → (2012년)62,208억원 (25.0%증가)

국가장학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확충하여 도입된 '맞춤형 국가장학금(1.75조원)'을 통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학의 등록금 인하와 연계하여 7분위 이하 대학생을 기준으로 최대 27%까지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I 유형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보자~3분위 이하)에게 90만원(20%)~450(100%)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고, 대학 자율로 설계

되는 II 유형 장학금은 학생 개인의 형편에 맞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드림장학금(3.6억원)을 신규로 도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5명씩 새로 선정하고 실제 유학에 앞서 내실있는 유학준비가 가능하도록 1년전부터 선발하여 멘토링제 운영 및 학습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하는 일반학자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ICL)의 금리를 인하(4.9→3.9%)하여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674억원)한다. 또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대해서는 성적요건을 완화(B0→C0이상, 73억원)하고,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한다.(140억원) 한편 실직,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경제곤란자에 대한 최대 2년간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76억원)를 새롭게 도입한다.

대학의 체질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노력도 지속한다. 국립대학 법인화(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와 통폐합(충주대학교-한국철도대학교) 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대학간 경쟁 촉진,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 등을 통해 대학 스스로 변화하는 체질개선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2,045억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667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300명, 95억원 → 500명, 156억원) 등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간강사는 '13년까지 단계적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인상(6→7만원)하고 인문학 진흥(506억원) 및 사회과학 연구토대 마련(260억원)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학문의 균형적 성장을 추진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207억원)은 저소득층의 참여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0%수준까지 우선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사업은 기존 사업들(광역경제권 인재육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지역거

점 연구단 육성)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1,700억원)으로 통합·개편하여 일부학과 중심의 산학협력을 대학 전체의 주류 활동으로 정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수혜 대상 학교를 기존 36개교에서 50개교로 대폭 확충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동반성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표 7-3 ●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49,769	62,208	25.0	
- 대학생 장학금 지원	5,218	19,240	268.8	
- 학자금 이자지원	3,494	4,729	35.3	
-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805	989	22.8	
- 글로벌수준의 박사양성	95	156	64.6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1,325	1,700	28.3	
- 입학사정관제	351	391	11.4	



● 평생·직업교육 부문

특성하고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교육분야 ODA 확대 및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하여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11년) 6,514억원 → (2012년) 5,948억원 (8.6% 감소)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에서 '성인이 참여하는 개방적 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지원(40 → 55억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지원(14 → 30억원)할 것이다.

2012년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성화고 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등 기지원자를 제외한 26.3만명에게 교육비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우선 취업을 하고, 추후에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를 지원(신규 12억원)한다.

교육역량과 교육성고가 뛰어난 전문대학들이 스스로의 발전전략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2,340억원)하고,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80 → 120억원)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도국의 교육원조 수요를 적극 지원하여 친한 이미지의 구축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개도국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Global Korea Scholarship Program」을 체계화하여 한국형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교육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다.(472→547억원) 아울러 개도국에 대한 교육정보화 마스터 플랜 수립 및 ICT 기반의 시범교실 운영을 통해 우리 교육의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20억원)한다.

재외국민 자녀들이 국내 교육과 연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의 시설 및 교직원의 확충과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540억원)한다. 특히, 재외한국학교에 전자교실 등 교육 기자재 확충을 위해 학교별로 7

천만원씩 신규로 지원한다.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민족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내 초청교육, 재외 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사업을 확대(23→24억원)할 계획이다.

표 7-4 • 평생·직업 교육 부문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 고
합 계	5,378	6,490	20.7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264	1,264	-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40	55	37.5	
-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14	30	114.3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2,600	2,340	△10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80	120	50	
- 한국형 첨단 교육서비스 수출 지원	20	20	2.3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472	547	15.9	
- 재외한국학교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	12	순증	

8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8-1 | 재정지원 방향

2012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6조원 수준으로 2011년 4.2조원보다 8.8%증가하였다.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특히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 한국인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 · 관광 일자리 창출 지원

영화·뮤지컬·만화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문화콘텐츠(2011년 449억원 → 2012년 906억원) 분야의 청년 일자리 발굴 지원을 강화하였고, 여행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비즈니스 방식의 창조적 관광사업을 신규로 지원(2012년 신규 43억원, 150명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시회(코코몽)

●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

서원·향교, 전통한옥 등 고유문화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별 新관광자원 개발을 유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였고,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에 대비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자 지원을 확대(2011년 2,131억원 → 2012년 2,462억원)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회의·전시회 등 대규모 외국인이 참여하는 MICE 관광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복지 지원 강화**

전국 지방문화원의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지원(2011년 100개소 → 2012년 228개소)과 건강활동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장비 보급(2011년 1,000개소 → 2012년 10,000개소)을 확대하여 어르신의 문화·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하고 스포츠바우처 및 여행바우처도 지원을 확대(문화·체육·여행바우처: 2011년 322억원 → 2012년 497억원)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비하여 학교와 지역 문화시설간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토요일 문화예술·체육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르신문화학교(강릉문화원)

표 8-1 ●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합계	42,045	45,757	8.8
- 문화예술	16,811	19,179	14.1
- 관광	9,257	9,829	6.2
- 체육	8,403	8,634	2.7
- 문화재	5,228	5,609	7.3
- 문화 및 관광일반	2,346	2,506	6.8

| 8-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문화예술 부문

한국인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 : (2011년) 75조원 → (2012년) 80조원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3D 등 차세대콘텐츠 분야로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향후 콘텐츠산업을 견인할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3D 제작시설 확충,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e-스포츠컴플렉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콘텐츠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콘텐츠 업체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콘텐츠의 건전 유통과 활용 촉진 등 시장구조 선진화를 병행 추진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나간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도 차질 없이 조성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소외계층·소외지역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 지원을 지속하되,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청소년 문화바우처 제도를 2012년 신규로 도입하여 청소년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토요 문화·체육학교 140개소를 개설하고 개소당 연 50백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창작 역량 강화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국내 우수 창작뮤지컬에 대한 재공연과 해외공연을 지원하여 신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도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창작(마을미술프로젝트)

또한, 저명예술인들의 재능나눔 확산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과 대기업 중심의 문화 기부를 중소기업, 개인으로 확산하여 사회전반의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가 풍성한 문화부국 구현을 위해 전통예술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2011년 19억원 → 2012년 24억원) 지원을 확대하여 전통문화의 체계적 계승·보존 및 창조적 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표 8-2 ● 문화예술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6,811	19,179	14.1	
- 문화콘텐츠관련 지원	4,868	5,343	9.9	
- 문화·체육·여행바우처	322	497	54.3	
- 토요 문화·체육학교	0	70	순증	

● 관광 부문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MICE 유치 및 관광숙박시설 용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 외래관광객 수 목표 : (2011년) 960만명 → (2012년) 1,100만명

서원·향교, 전통한옥 등 고유문화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별로 新관광자원화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서울 4대문안의 관광인프라를 구축(2012년 신규 60억원)하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전통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하고 한국의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고택·종택, 사찰·서원·향교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한국관광 으뜸명소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또한,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국민의 높아진 여가수요에 부합하도록 관광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즉,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산업 등을 융복합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관광산업체 융자 지원(2011년 2,131억원 → 2012년 2,462억원)을 확대한다.

이외에 생태녹색관광, 스토리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역사·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표 8-3 ●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9,257	9,829	6.2	
- 전통문화체험 지원	135	226	67.4	
- MICE 육성 지원	139	166	19.4	
- 관광숙박시설 융자지원	2,131	2,462	5.5	

● 체육 부문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경기대회, 스포츠산업 및 장애인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 건강, 국위선양,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한다.

☞ **체육부문 : (2011년) 8,403억원 → (2012년) 8,634억원(2.7% 증)**

국민건강증진 및 여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어르신의 체육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체육용품 지원(2011년 400개소 → 2012년 1만개소)과, 체육활동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2011년 1,950명 → 2012년 2,235명)이 확대된다.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체력관리를 위한 국민체력인증제사업을 본격 추진(2011년 5억원 → 2012년 20억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용품 및 체육강좌 수강을 지원하는 체육바우처사업(2011년 29천명 → 2012년 36천명)도 확대한다.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등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2011년 1,344억원 → 2012년 1,480억원)한다.

2012런던올림픽과 2018평창올림픽 등에 대비한 전문체육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2012런던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양성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 열악한 동계훈련시설 개선 및 선수양성을 위한 동계스포츠육성도 신규(2012년 90억원)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대표종합훈련장 1단계 시설에 대한 신규운영(2012년 105억원)과 2단계 시설에 대한 신규착공(2012년 49억원)을 지원한다.

2013충주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등 7개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또한,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태권도공원건립(2011년 500억원 → 2012년 827억원)과 육상발전의 토대가 될 육상진흥센터건립(2011년 90억원 → 2012년 180억원) 등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스포츠용품 인증사업 및 스포츠 마케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과 개별업체에 대한 직접적

인 용자사업 등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2011년 109억원 → 2012년 120억원) 한다.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과 장애인형 생활체육센터 건립 신규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을 강화(2011년 75억원 → 2012년 108억원)한다. 2012런던장애인올림픽에 대비한 대표선수 강화훈련 및 장애인국가대표훈련시설 2단계 건립 등 장애인전문체육도 적극 지원한다.



장애인생활체육

표 8-4 ●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8,403	8,634	2.7	
- 생활체육 육성	2,917	3,123	7.1	
- 국제경기대회 지원	1,482	1,710	15.4	
- 국제체육교류 증진	2,717	2,964	9.1	
- 스포츠산업 육성	449	597	33.0	
- 장애인체육 육성	323	440	36.2	

● 문화재 부문

문화재 지정, 훼손 문화재 보수, 예방적 문화재 관리, 유물보관사업, 문화재 복원 및 문화재 국제교류 등 문화재 보존을 적극 지원한다.

☞ 문화재부문 : (2011년) 5,228억원 → (2012년) 5,609억원(7.3% 증)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 사적, 동산·건조물의 지정 및 보존관리와 문화재수리 기술 및 수리기준 제정 등 체계적 문화재 보존을 지원(2011년 46억원 → 2012년 51억원)한다.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금 및 전수관 건립 등을 확대 지원(2011년 207→ 2012년 240억원)한다. 자연문화재 및 근대문화재(2011년 25억원 → 2012년 47억원) 보존도 확대지원 한다. 전국의 다양한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수정

비사업도 대폭 확대(2011년 1,888억원 → 2012년 2,002억원)하고, 승례문 복원 완공소요(57억원)를 지원한다.

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관리지원도 강화된다. 주요 목조문화재에 설치하는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2011년 90억원 → 2012년 99억원) 및 상시·일상적 관리를 위한 문화재상시관리활동사업(2011년 23억원 → 2012년 69억원)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진대비 문화재 안전 등 문화재방재기술 개발도 신규지원(2012년 13억원) 한다.

유물보관사업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수증유물보관센터 및 전통 건축부재보관센터를 신규 지원(2012년 15억원)한다. 경북궁, 덕수궁 및 조선왕릉 등 궁·능원 관리 뿐 아니라 덕수궁 석조전 복원공사를 지속지원하고(2011년 25억원 → 2012년 30억원), 노후화된 궁궐담장 보수 등 궁관리소시설 운영사업을 확대 지원(2011년 49억원 → 2012년 68억원)한다.

문화재 국제교류도 적극 지원한다. 불법 반출된 국외문화재 환수와 현지활용사업을 확대(2011년 6억원 → 2012년 25억원)하고, 수원화성, 고인돌유적, 한국의 역사마을 및 제주화산섬 등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도 대폭 확대(2011년 220억원 → 2012년 357억원)한다.



세계유산보호(해인사 장경판전)

남북간 문화재교류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개성만월대 발굴을 지속지원하고, 북한소재 고문헌자료 DB구축 및 고구려벽화 발굴을 신규로 지원(2012년 4억원)한다.

표 8-5 ● 문화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5,228	5,609	7.3	
- 문화재보존관리	2,269	2,413	6.3	
- 문화재예방적 관리	322	385	19.8	
- 문화재 국제교류	270	424	56.9	

9 환경 분야

9-1. 재정지원 방향

2012년 환경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9조원으로 2011년 5.7조원 대비 3.5% 증가하였다. 예산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5.1조원이고, 기금은 2.8% 증가한 0.8조원이다. 2012년에는 환경 기초시설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 인프라 지속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염하천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생태하천복원 등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확충 및 식수원 개발투자를 지속한다.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권역별 재활용산업 집적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폐자원의 효율적 재이용을 촉진한다. 타 환경기초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연계·병합처리 및 인접 지자체간 통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광역화를 유도한다.

● 미래 환경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투자 확대

기후변화에 대비, 부문별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자치단체의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 배출이 적은 녹색제품 보급촉진, 그린카드 확대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폐기물 에너지화 등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한반도 생태계 보전 및 생물자원산업 성장기반 마련**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생태 우수지역 보전을 확대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대응하여 고유 자생생물 발굴 확대 등 국내 생물주권을 강화한다.

표 9-1 ●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 합 계 >	57,520	59,531	3.5
- 상하수도 · 수질	38,526	39,201	1.8
- 폐기물	2,707	2,883	6.5
- 대기	3,010	3,233	7.4
- 자연 및 해양	6,229	6,204	△0.4
- 환경일반	7,047	8,010	13.7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상하수도 · 수질 부문**

전국 하천을 생명 · 생태가 살아있는 건강한 수생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2011년) 38,526억원 → (2012년) 39,201억원 (1.8%증가)

그간 4대강 유역 중점 투자로 깨끗해진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하천(BOD

3~5)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등 수질개선투자를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을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한다.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 저지대의 낡은 하수관거를 조기 교체·개보수하여 침수를 사전 예방한다.



하수처리장

수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을 건강하게 되돌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강화한다.

'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하수 슬러지 시설,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을 확충한다. 그동안 유출 경로가 명확한 하수처리장·관거 등 점(點)오염원 저감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산재되어 있고 빗물에 의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비점(非點)오염원에 의한 오염도 증가하고 있어, 생태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기초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 보급을 확대한다.

기존 공정으로는 정수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추가로 정수할 수 있도록 노후 정수장에 활성탄·오존 등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불순물질을 분리·제거하는데 막(membrane)을 활용하는 막여과 정수시설을 지속 확대한다.



가압식 막 정수시설

표 9-2 • 상하수도·수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38,526	39,201	1.8	
- 하수관거	5,285	6,353	20.2	
- 공단폐수처리시설	2,195	3,573	62.8	
- 생태하천복원	1,311	1,623	23.8	
- 비점오염원 관리	412	510	23.8	
- 가축분뇨처리시설	852	1,078	26.5	
- 상수도시설 확충	3,727	3,793	1.8	

● 폐기물 부문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등 자원순환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원화 등이 어려운 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 (2011년) 2,707억원 → (2012년) 2,883억원 (6.5%증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바이오가스 생산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자원순환(zero waste) 사회를 구현한다.



매립가스 여열회수

남비시설로 인식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양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RFID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표 9-3 ● 폐기물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2,707	2,883	6.5	
- 쓰레기 처리시설	758	983	29.7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28	36	28.6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	30	순증	
- 재활용시설 현대화	39	47	20.7	
- 재활용산업육성 용자	650	650	-	

● 대기 부문

대기오염 개선에 지속 투자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 (2011년) 3,010억원 → (2012년) 3,233억원 (7.4%증가)

천연가스 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저감한다.

친환경 그린카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클린디젤 등의 핵심부품 효율 향상 및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확대, 검증인력 양성 확대 등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지원한다.



전기차 및 충전시설

표 9-4 • 대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3,010	3,233	7.4	
- 온실가스 인프라구축	87	109	25.3	
- 전기차 보급	171	573	235.1	
- 기후변화적응대책	300	386	28.7	
- 대기개선사업	1,474	1,201	△18.5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04	373	△7.6	

● 자연 및 해양부문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생물자원의 주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 (2011년) 6,229억원 → (2012년) 6,204억원 (△0.4%)

한반도 3대 생태축(DMZ, 백두대간, 도서 연안)의 훼손된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국립공원 등 생태우수지역 보전을 확대한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대응하여 고유 자생생물 발굴 확대, 해외 생물자원 확보 등 생물자원보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바이오(BT)산업의 기초를 탄탄하게 구축한다.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복원을 위해 해양생태계 기초자료 조사와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 및 갯벌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국가생물자원

표 9-5 • 자연 및 해양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6,229	6,204	△0.4	
-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79	109	38.0	
- 국립생태원 건립	571	595	4.2	
- 나고야의정서 대응	-	20	순증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62	66	6.4	
-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100	200	100.0	

● 환경일반 부문

환경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면 등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 (2011년) 7,047억원 → (2012년) 8,010억원 (13.7%증가)

폐기물 에너지화 등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 개도국 환경플랜트 진출 등 환경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보육시설·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진단을 확대하여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석면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등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 환경성질향 보건교실

표 9-6 • 환경일반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7,047	8,010	13.7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1,260	1,300	3.2	
- 저탄소 녹색도시 지원	100	145	45.0	
-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	84	128	52.4	
- 석면관리종합대책	48	89	85.4	
- 어린이환경보건대책	20	59	192.6	

10 국방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12년 국방비(일반회계 총계) 규모는 33,0조원이며, 장병 사기·복지 진작, 교육훈련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핵심전력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

●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지원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능력 극대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국지도발 등에 대비한 접적지역의 작전 및 경계시설을 확충한다.

●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과 부대운영 애로 해소에 중점 투자하고, 장병들의 위생여건 및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 현존위협 및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핵심전력 강화

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 등에 대한 대비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전력을 보강한다.

표 10-1 ● 국방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 합 계 >	314,031	329,576	5.0
- 병력운영	128,185	134,923	5.3
- 전력유지	88,911	95,714	7.7
- 방위력개선	96,935	98,938	2.1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병력운영 부문

군 구조개편을 위한 장교·부사관 증원, 유급지원병 확대 등 국방개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 **병력운영 : (2011년) 12.8조원 → (2012년) 13.5조원**

병 감축, 부사관 증원 등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전투력 확보를 위한 장교·부사관을 총 2천여명 증원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기술 숙련병 및 첨단장비 운영 전문병 확보를 위해 유급지원병을 8천여명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방 중대급 전투부대에서 숙련된 부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연한에 따라 장려수당을 월 5~7만원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 특전사 등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병 함정출동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장병 처우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표 10-2 ● 병력운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28,185	134,923	5.3	
- 인건비	111,725	117,579	5.2	법정부담금 포함
- 급식 및 피복	16,460	17,344	5.4	기본급식비 : 월 5,820→6,155원

● 전력유지 부문

전투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부대운영 애로 해소 및 군 의료체계 개선 등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전력유지 : (2011년) 8.9조원 → (2012년) 9.6조원**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전훈련용 과학화장비 확충(8→194억원), 실사격 훈련 강화(2,857→2,981억원), 실전훈련장 구축(신규 158억원) 등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한다.

침투·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 서북도서 요새화,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 등 접적지역의 작전 및 경계시설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933→1,569억원)한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과 부대운영 애로 해소를 위해 병사들의 애로상담 등 어머니 역할을 하는 주임원사의 활동비 인상(월 30~10만원 → 월 40~20만원), 대대급 이하 부대의 당직근무비 신설(일 5천원)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전투부대 참모부 운영비 10% 인상 등을 시행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장병들의 위생여건 및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입대 장병 15만명에게 뇌수막염백신을 신규 접종하고, 유행성 이하선염백신 접종도 모든 입대 장병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처음으로 군 생활중 상병 진급시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군 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22개 의료시설의 시설을 개선하고, 민간 전문의사 채용을 37명에서 61명까지 확대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집단생활로 인한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개선에 투자를 대폭 확대(188→480억원) 한다.

2008년부터 집중투자하고 있는 병영생활관 및 간부숙소 개선사업은 2012년까지 발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잔여물량에 대한 투자비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해안경계 임무 조정으로 그 동안 투자가 지연되었던 노후 해안초소 생활관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한다.

표 10-3 • 전력유지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88,911	95,714	7.7	
- 군수지원 및 협력	37,329	38,752	3.8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3,317	25,411	9.0	
- 교육훈련	4,491	5,062	12.7	
- 기타	23,774	26,489	11.4	

● 방위력개선 부문

국지도발과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핵심전력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 및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 방위력개선 : (2011년) 9.7조원 → (2012년) 9.9조원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감시·탐지능력을 보강하고, K-9자주포,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등 정밀타격능력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철매Ⅱ 성능개량 등 방공능력을 강화한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하여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지휘통제체계 강화와 한국군의 주도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모의 위계임센터 신축 및 분석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군 구조개편을 위한 필수소요인 지상작전사



령부 개편, GOP과학화 경제시스템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을 위해 K1A1전차 성능개량, KF-16전투기 성능개량 등도 지속 추진한다.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국방 R&D 투자를 국방예산의 7%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 억제전력 구비를 위해 차세대전투기(F-X), 대형공격헬기 등의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

표 10-4 • 방위력개선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96,935	98,938	2.1	
- 무기체계 도입	75,240	74,480	△1.0	
- 국방 R&D 투자	20,573	23,215	12.8	
- 방위사업 종합지원	1,122	1,243	10.8	

11 외교 · 통일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12년 외교 · 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3.9조원으로 2011년 예산 3.7조원보다 8.0% 증가하였다. 국제기여 관련 지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2011년 1조 6,469억원에서 1조 8,688억원으로 13.5% 증액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 수준인 1조 11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국제기여 확대 등을 통한 국격 제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전환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성장한 만큼 베푸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다변화하고, 저탄소 · 녹색성장을 국가브랜드화하며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여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순회영사서비스 확대 등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애로해결 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등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도울 것이다. 더불어, 재외동포 2~3세대 전문인력의 재외공관 채용, 노후화된 재외공관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인적 · 물적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적 역량강화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

2만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지원,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 등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적 역량을 높일 것이다.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으나, 북한의 진정성이 내포된 태도변화가 있을시 대북 인도적 지원·남북경제협력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계획이다.

표 11-1 ●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 합계 >	36,511	39,430	8.0
- 외교·통상 부문	24,004	26,782	11.6
- 통일 부문	12,508	12,647	1.1

1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외교·통상 부문

국제기여 확대를 통한 국격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핵안보 등 글로벌 이슈의 주도를 위해 외교·통상부문 총지출은 2조 6,782억원을 편성하였다.

☞ 외교·통상부문 총지출 : (2011년)24,004 → (2012년)26,782억원

2012년도 외교·통상부문 총지출은 2조 6,782억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분담금 증액 등 국제기여 확대, 및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인해 2011년도 보다 2,778억원 증가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개발도상국 의료지원

2011년 0.13%에서 2012년 0.15%까지 확대하였고, UN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규모를 2011년 4,089억원에서 2012년 5,72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개도국 내 지하파 육성을 위한 단기 초청연수, 국비장학생 초청교육 등 인력양생사업을 확대하고(341→429억원),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도국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도 적극 지원할 계획계획이다(190→256억원).

FTA 추진 대상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51→55억원)하는 한편, 핵안보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339억원)하였다. 더불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 외교를 지속 지원(85억원)하였다.

해외여행경보제, 재외국민보호콜센터 운영, 순회영사서비스 확대 등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59억원→71억원) 해나가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애로 해결 및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반영(25억원→32억원)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2~3세대 전문인력 중심의 재외공관 행정원 충원사업을 지원(147억원)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의 리모델링을 지원(143억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인프라도 확충하였다. 더불어 재외동포 교류활동 및 권익신장 등을 위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247억원→334억원)하였다.

표 11-2 • 외교·통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24,004	26,782	11.6	
- 국제기구분담금	4,175	5,724	37.1	PKO분담금 등
- 공적개발원조(ODA)	16,469	18,688	13.8	KOICA출연, EDCF
-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325	416	28.0	재외국민보호, 재외동포재단 지원 등

● 통일 부문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적 역량 강화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통일부문 총지출은 1조 2,647억원을 편성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 (2011년)10,153 → (2012년)10,060억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을 제고시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규모를 확대(2011년 600억원→2012년 750억원)하고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을 10.0% 증액(2011년 111억원→2012년 123억원)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산 259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재단이 안정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말 완공예정인 제2하나원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170억원을 지원한다.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해 통일교육 예산을 확대한다. 학교통일교육 강화 및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예산을 전년대비 17.0% (2011년 81억원→2012년 95억원)증액하여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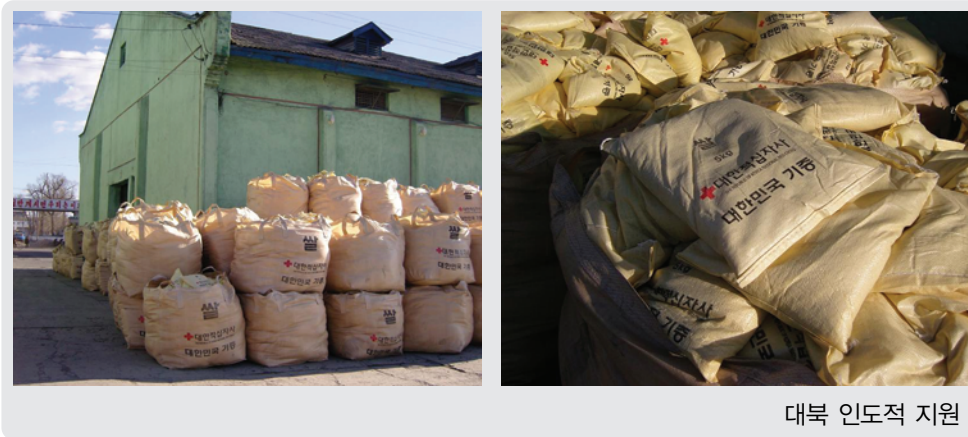
2012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규모는 1조 116억원으로 2011년 1조 209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천안함 포격·연평도 도발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2011년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427억원으로 낮은 수준이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대북 식량·비료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40만톤과 30만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북자연재해지원 예산 150억원을 반영하였다. 남북경제협력지원 및 개성공단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3,47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표 11-3 •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12,508	12,647	1.1	
- 사회문화교류	88	88	-	인적왕래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
- 인도적 지원	6,209	6,545	5.4	대북식량·비료 지원 등
- 남북경협	3,968	3,512	△11.5	개성공단 조성 등



대북 인도적 지원

【 참고 】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의 집행기관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 제공한 자금 흐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지원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관련되어야 하며, 둘째, 지원주체가 정부나 이의 대행기관이고, 셋째, 지원조건은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 혹은 종교적 목적의 지원, 학술 및 문화교류 차원의 지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 등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ODA는 주체별로 크게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국가 대 국가로 공여되는 원조로서 상환의무에 따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구분되며, 다자간 협력은 1970년대부터 채택된 원조방식으로 개도국 원조시 그 나라에 직접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국제기구 분담금 또는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이다.

다자간 협력은 양자간 협력에 비해 국제기구에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주도로 원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 참고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우리나라는 2009.11.25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 DAC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24번째 DAC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0.1.1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중이다.

우리나라는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형 ODA모델의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가는 한편, DAC 가입을 계기로 ODA규모를 2012년 GNI대비 0.15%, 2015년 0.2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 공공질서 · 안전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12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14.5조원으로 2011년 13.7조원보다 6.3% 증가하였다. 2012년 예산은 취약계층 생활안전 확보, 내·외국인 사법 접근성 향상, 해상 위기관리·경비역량 강화, 재해예방투자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 취약계층 생활안전 확보

지방경찰청 단위의 「통합112신고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소송과정 전반의 내·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국내체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신설, 무죄판결 결과에 대한 신문공고 확대 및 인신보호제도 확대로 소송과정 전반에서 내·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 해상 위기관리·경비역량 강화

국가 긴급상황 및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형공기부양정을 도입하고 중대형 함정의 성능을 개선하며, 「특공대훈련원」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장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재해예방투자 확대

서민밀집위험지역, 급경사지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지역정비를 강화하고 빗물저류시설을 확충하며, 방재 R&D 예산을 확대하여 재해예방능력을 제고한다.

표 12-1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 합 계 >	136,565	145,221	6.3
- 법원 및 현재	14,273	14,980	5.0
- 법무 및 검찰	25,434	27,056	6.4
- 경찰	78,164	82,670	5.8
- 해양경찰	10,399	10,851	4.3
- 재난관리	8,296	9,664	16.5

1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법원 및 현재부문

국내체류 외국인·이주민 사법지원제도 신설, 무죄판결 공고 및 인신보호제도 확대로 소송과정 전반에서 내·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 일반재판운영지원 : (2011년) 293 → (2012년)349억원

국내체류 외국인 및 이주민을 위해 법원의 각종 서류 및 안내문 등을 소송당사자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소송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및 이주민의 인권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죄판결에 대한 신문공고를 확대 시행하고,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표 12-2 • 법원 및 현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계	14,273	14,980	5.0	
-일반재판운영지원	293	349	19.1	국내체류 외국인·이 주민 사법지원 등
-형사재판업무지원 등	66	75	13.6	무죄판결공고료 등
-인신보호지원	13	14	7.6	인신보호 전문가 자문 료 등

● 법무 및 검찰부문

아동·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범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2011년) 50억원 → (2012년) 80억원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신규): 19억원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를 신규 도입하며,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신상공개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제도를 도입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서민 법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홈닥터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며, 무변촌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표 12-3 ●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25,434	27,056	6.4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50	80	62.2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수사 강화 등
- 성폭력범죄예방사업	60	81	33.8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공개 등
- 법률구조	310	342	10.3	무변촌에 법률구조공단 지소 추가 설치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15	565	9.7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 복지부 등 12개 사업
-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	5	순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 비스 제공(신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33	53	58.6	운영기관 확대(150→400개)

● 경찰 부문

「통합112신고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표준화하여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콜센터 설치 등 치안서비스 만족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범죄 분석·대응의 과학화 : (2011년) 135억원 → (2012년) 393억원

「통합112신고시스템」을 5개 지방경찰청에 추가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SOS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통합 112 신고센터

치안서비스 만족 제고를 위하여 경찰콜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신입경찰관 채용단계 검증 및 교육 강화를 통하여 경찰관 자질 향상을 추진한다.

전·의경 처우개선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전·의경 버스를 우등버스로 교체하며, 노후숙영시설 개선 및 문화생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표 12-4 ●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78,164	82,670	5.8	
- 범죄 분석·대응의 과학화	135	393	191.5	통합112신고시스템 전국 확대 및 표준화
- 범죄수사역량강화	109	185	69.1	범죄수사 활동 강화
- 경찰기동력 강화	503	559	11.1	112순찰차 구매방식 개선(할부→일시불)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5	42	697.2	경찰콜센터 신설
- 전·의경 생활문화개선	69	121	54.9	전·의경 숙영시설 개선 및 문화생활 지원 등 처우 개선
-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717	1,160	61.8	면허관리단 인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 반영

● 해양경찰 부문

대형함정 추가확보 및 노후함정 성능개선을 통하여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조업 단속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불법어선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 대형함정건조 : 10척 추가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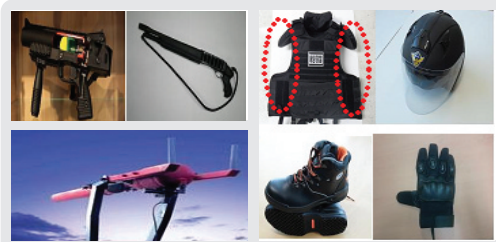
(5천톤 1척, 3천톤 2척, 고속단정 6척, 대형공기부양정 1척)

대형함정 및 고속단정을 신규 발주하는 한편, 경비함정 성능개선을 위한 노후함정 대체건조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비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자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불법조업 어선 검거를 위한 해·공 입체작전

불법어선의 집단저항, 흉기사용 등을 사전 무력화할 수 있는 비살상 진압장비와 단속 경찰관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 채증·통신 장비를 최신형으로 개선 및 확대 보급한다.



비살상 진압장비 및 단속요원 안전장비

표 12-5 ● 해양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합 계	1,985	2,212	11.4	
- 대형함정건조	761	501	△34.2	신규발주 10척, 기 진행 3척
- 노후함정대체건조	1,099	1,510	37.4	신규발주 4척, 기 진행 22척
- 무기구입 및 경찰관급대여품	50	87	74.0	유탄발사기, 그물총 등 비살상 무기 방검부력조끼 등 안전장비
- 통신장비구입및유지	75	114	52.0	채증·통신장비

● 재난관리 부문

재난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등 : (2011년) 5,800억원 → (2012년) 6,888억원

☞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 (2011년) 367억원 → (2012년) 445억원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국민안전 제고를 위하여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을 확대한다. 서민밀집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신규로 포함하여 위험지구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침수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사업을 추진한다.



빗물저류시설 설치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신규로 지원(2012년 28억)하고,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

표 12-6 ●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억원, %)

구 분	2011년 (a)	2012년 (b)	증감률 (b/a)	비고
〈재난관리 투자 규모〉	8,296	9,664	16.5	
• 재해위험지역정비 등	5,800	6,888	18.8	
- 재해위험지역정비	3,083	3,688	19.6	서민밀집지역, 급경사지 정비(신규)
- 소하천 정비	2,072	2,269	9.5	
- 빗물저류시설 설치	388	578	49.0	
- 방재 관련 R&D	257	353	37.4	자연재해저감 기술 등
• 어린이안전영상정보	367	445	21.3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03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12년도 예산

제2장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 제1장 |

2012년도 예산

1 2012년도 예산총칙

❖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23,138,377,514,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681,360,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010,125,104,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249,351,233,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41,960,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94,618,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363,959,000,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03,815,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85,007,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802,753,174,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31,694,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98,577,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9,048,000,000원
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408,497,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428,678,006,000원
⑯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75,903,192,000원
⑰ 조달특별회계	254,687,660,000원
⑱ 우편사업특별회계	3,699,178,000,000원
⑳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519,748,000,000원

- ❖ 제2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 제3조 2012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 제4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 제5조 201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 ❖ 제6조 2012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 ❖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 제8조 2012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2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00,000,000원
⑤ 공적자금상환기금	350,000,000,000원

- ❖ 제9조 2012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 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국민주택기금	11,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 통신 사업·기동전력 사업·함정 사업·항공기 사업·화력탄약 사업·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사업·정밀타격/신평수무기 사업·국방연구개발 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입	지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레바논·아이티·소말리아 해외 파병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3조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1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00,000,000원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1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10,000,000,000원
-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 51,756,000,000원
-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9,287,000,000원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05,149,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186,625,688,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1,158,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750,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05,744,000,000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309,287,000,000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95,424,000,000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9,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내국세 (Internal Taxes)	151,363,200	72.1
2.관세 (Customs & Duties)	11,365,700	5.4
3.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Energy·Environmental Tax)	12,366,800	5.9
4.교육세 (Educational Tax)	4,601,800	2.2
5.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068,100	0.5
6.세외수입 (Non-Tax Revenues)	29,164,668	13.9
· 국채발행 (Government Bonds Issuance)	21,000,000	10.0
· 기타수입 (Others)	8,164,668	3.9
합 계 (Total)	209,930,268	100.0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166,145,400	74.5	14,782,200	9.8
11,611,100	5.2	245,400	2.2
13,686,300	6.1	1,319,500	10.7
4,769,600	2.1	167,800	3.6
1,063,100	0.5	△5,000	△0.5
25,862,878	11.6	△3,301,790	△11.3
13,840,000	6.2	△7,160,000	△34.1
12,022,878	5.4	3,858,210	47.3
223,138,378	100.0	13,208,110	6.3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1.국세 (Tax Total)	180,765,6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151,363,200
나. 관세 (Customs & Duties)	11,365,7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2,366,8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4,601,800
마.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068,100
2.세외수입 (Non-Tax Revenues)	29,164,668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459,652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4,630,963
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948,009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37,405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1,072,311
바.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10,584
사.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785,744
아. 정부내부수입및기타 (Others)	21,020,000
합 계 (Total)	209,930,268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197,275,500	16,509,900	9.1
166,145,400	14,782,200	9.8
11,611,100	245,400	2.2
13,686,300	1,319,500	10.7
4,769,600	167,800	3.6
1,063,100	△5,000	△0.5
25,862,878	△3,301,790	△11.3
2,313,101	1,853,449	403.2
5,581,482	950,519	20.5
907,443	△40,566	△4.3
246,640	9,235	3.9
960,447	△111,864	△10.4
4,283	△6,301	△59.5
1,978,983	1,193,239	151.9
13,870,500	△7,149,500	△34.0
223,138,378	13,208,110	6.3

나. 국세수입 내역(Tax Revenues)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151,363,200
(1) 소득세 (Income Tax)	40,037,900
(가) 신고분 (Income Tax Not Withheld)	15,127,000
(나) 원천분 (Withheld Income Tax)	24,910,900
(2) 법인세 (Corporate Tax)	41,300,100
(3) 상속세 (Inheritance Tax)	3,092,100
(가) 상속세 (Inheritance Tax)	1,300,100
(나) 증여세 (Gift Tax)	1,792,000
(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52,937,300
(5)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5,012,400
(6) 증권거래세 (Security Transaction Tax)	3,920,700
(7) 인지세 (Stamp Tax)	532,400
(8) 기타내국세 (Other Internal Taxes)	4,530,300
나. 관세 (Customs & Duties)	11,365,70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2,366,800
라. 교육세 (Educational Tax)	4,601,800
마.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068,100
합 계 (Total)	180,765,600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166,145,400	14,782,200	9.8
45,769,900	5,732,000	14.3
16,153,200	1,026,200	6.8
29,616,700	4,705,800	18.9
44,545,800	3,245,700	7.9
3,687,900	595,800	19.3
1,273,100	△27,000	△2.1
2,414,800	622,800	34.8
56,801,600	3,864,300	7.3
6,037,700	1,025,300	20.5
4,248,000	327,300	8.3
610,800	78,400	14.7
4,443,700	△86,600	△1.9
11,611,100	245,400	2.2
13,686,300	1,319,500	10.7
4,769,600	167,800	3.6
1,063,100	△5,000	△0.5
197,275,500	16,509,900	9.1

다. 소관별 세입예산(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01)대통령실 (Office of the President)	84	0	0	84
(02)국회 (National Assembly)	1,040	0	0	1,040
(03)대법원 (Supreme Court)	371,280	0	0	371,280
(04)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0	0	0	0
(05)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789	0	0	789
(06)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	0	0	2
(07)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366	0	0	366
(08)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1,008	0	0	1,008
(09)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0	0	0	0
(10)기획재정부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83,001,211	21,000,000	0	204,001,211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151,363,200	0	0	151,363,200
② 관세 (Customs & Duties)	11,365,700	0	0	11,365,700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12,366,800	0	0	12,366,800
④ 교육세 (Educational Tax)	4,601,800	0	0	4,601,800
⑤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068,100	0	0	1,068,1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2,235,611	21,000,000	0	23,235,611
(11)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374,888	0	0	374,888
(12)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133,487	0	0	133,487
(13)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565	0	0	565
(14)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805,211	0	0	1,805,211
(15)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92,237	0	0	92,237
(16)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7,621	0	0	27,621
(17)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39,196	0	0	39,196
(18)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283	0	0	20,283
(19)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90,254	0	0	90,254
(20)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388,367	0	0	388,367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110	0	0	110	26	0	0	26
1,087	0	0	1,087	47	0	0	47
383,433	0	0	383,433	12,153	0	0	12,153
440	0	0	440	440	0	0	440
11,040	0	0	11,040	10,251	0	0	10,251
3	0	0	3	1	0	0	1
333	0	0	333	△33	0	0	△33
1,379	0	0	1,379	371	0	0	371
1,018	0	0	1,018	1,018	0	0	1,018
202,184,267	13,840,000	0	216,024,267	19,183,057	△7,160,000	0	12,023,057
166,145,400	0	0	166,145,400	14,782,200	0	0	14,782,200
11,611,100	0	0	11,611,100	245,400	0	0	245,400
13,686,300	0	0	13,686,300	1,319,500	0	0	1,319,500
4,769,600	0	0	4,769,600	167,800	0	0	167,800
1,063,100	0	0	1,063,100	△5,000	0	0	△5,000
4,908,767	13,840,000	0	18,748,767	2,673,157	△7,160,000	0	△4,486,843
572,098	0	0	572,098	197,210	0	0	197,210
144,470	0	0	144,470	10,983	0	0	10,983
572	0	0	572	7	0	0	7
1,848,959	0	0	1,848,959	43,748	0	0	43,748
97,007	0	0	97,007	4,770	0	0	4,770
39,783	0	0	39,783	12,162	0	0	12,162
41,796	0	0	41,796	2,600	0	0	2,600
18,560	0	0	18,560	△1,723	0	0	△1,723
91,473	0	0	91,473	1,219	0	0	1,219
437,077	0	0	437,077	48,710	0	0	48,710

소 관 Agency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22)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3,044	0	0	13,044
(23)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740	0	0	2,740
(24)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84,481	0	0	84,481
(27)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2,407	0	0	2,407
(28)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	0	0	20
(30)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11,565	0	0	311,565
(32)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408,221	0	0	408,221
(33)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0,710	0	0	10,710
(35)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550,368	0	0	550,368
(36)관세청 (Customs Service)	21,841	0	0	21,841
(38)통계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977	0	0	2,977
(39)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334	0	0	334
(40)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63,651	0	0	63,651
(41)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928,737	0	0	928,737
(42)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1,083	0	0	11,083
(43)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26,939	0	0	26,939
(44)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6,024	0	0	6,024
(45)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10,589	0	0	110,589
(46)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	13,689	0	0	13,689
(48)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	8,311	0	0	8,311
(49)기상청 (Meteorological Adm.)	2,153	0	0	2,153
(50)해양경찰청 (National Maritime Police Adm.)	2,495	0	0	2,495
(53)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0	0	0	0
합계 (Total)	188,930,268	21,000,000	0	209,930,268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41,231	0	0	41,231	28,187	0	0	28,187
4,928	0	0	4,928	2,188	0	0	2,188
121,493	0	0	121,493	37,012	0	0	37,012
2,537	0	0	2,537	130	0	0	130
20	0	0	20	0	0	0	0
335,650	0	0	335,650	24,085	0	0	24,085
405,068	0	0	405,068	△3,153	0	0	△3,153
11,617	0	0	11,617	907	0	0	907
729,357	0	0	729,357	178,989	0	0	178,989
24,329	0	0	24,329	2,488	0	0	2,488
4,226	0	0	4,226	1,249	0	0	1,249
342	0	0	342	89	0	0	8
105,191	0	0	105,191	41,540	0	0	41,540
934,939	0	0	934,939	6,202	0	0	6,202
12,413	0	0	12,413	1,330	0	0	1,330
25,516	0	0	25,516	△1,423	0	0	△1,423
6,028	0	0	6,028	4	0	0	4
127,581	0	0	127,581	16,992	0	0	16,992
516,578	0	0	516,578	502,889	0	0	502,889
8,548	0	0	8,548	237	0	0	237
2,119	0	0	2,119	△34	0	0	△34
3,567	0	0	3,567	1,072	0	0	1,072
194	0	0	194	194	0	0	194
209,298,378	13,840,000	0	223,138,378	20,368,109	△7,160,000	0	13,208,110

라. 성질별 세외수입(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11.재산수입 (Property Income)	459,652
51.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100,569
52.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276,290
53.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1,349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Others)	81,443
12.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4,630,963
56.벌금,몰수금및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195,380
57.변상금및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67,821
58.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527,612
59.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840,150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948,009
62.병원수입 (Hospital Income)	7,439
64.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351
65.면허료및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607,022
66.입학금및수업료 (School Entrance & Tuition Fee)	265,882
68.실습수입 (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3,809
69.잡수입 (Others)	63,507
14.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237,405
51.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583
56.벌금,몰수금및과태료 (Fine & Confiscation)	0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2,313,101	1,853,449	403.2
88,652	△11,917	△11.8
650,000	373,710	135.3
1,235	△114	△8.5
1,573,214	1,491,771	1,831.70
5,581,482	950,519	20.5
3,266,464	71,084	2.2
69,118	1,297	1.9
696,746	169,134	32.1
1,549,154	709,004	84.4
907,443	△40,566	△4.3
7,534	95	1.3
1,394	1,043	297.2
610,740	3,718	0.6
225,728	△40,154	△15.1
3,998	189	5
58,049	△5,458	△8.6
246,640	9,235	3.9
626	43	7.4
0	0	0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57.변상금및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0
59.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0
64.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1,623
65.면허료및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167,804
69.잡수입 (Other)	57,395
71.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Fixed Assets)	0
15.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1,072,311
71.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Fixed Assets)	10,349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1,061,955
73.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7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10,584
75.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6,299
77.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4,285
31.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Collection of Idle Money)	785,744
84.유가증권매각대 (Sales of State-holding Stocks)	785,744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Intra Governmental Transfers & Others)	21,020,000
91.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20,000
94.예수금 (Deposits)	21,000,000
합계 (Total)	29,164,668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1	1	순증
1	1	순증
11,985	362	3.1
182,780	14,976	8.9
51,247	△6,148	△10.7
0	0	0
960,447	△111,864	△10.4
19,506	9,157	88.5
940,933	△121,022	△11.4
8	1	14.3
4,283	△6,301	△59.5
397	△5,902	△93.7
3,886	△399	△9.3
1,978,983	1,193,239	151.9
1,978,983	1,193,239	151.9
13,870,500	△7,149,500	△34.0
30,500	10,500	52.5
13,840,000	△7,160,000	△34.1
25,862,878	△3,301,790	△11.3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46,669,908	22.2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2,864,004	6.1
3. 외교 · 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2,324,336	1.1
4. 국방 (National Defense)	31,579,978	15.0
5. 교육 (Education)	40,842,212	19.5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1,806,026	0.9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2,949,597	1.4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23,691,806	11.3
9. 보건 (Health)	5,660,625	2.7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5,123,748	2.4
11.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4,441,641	2.1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14,616,800	7.0
13. 통신 (Communication)	386,192	0.2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10,515,605	5.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4,057,789	1.9
16. 예비비 (Reserve Funds)	2,400,000	1.1
합 계 Total	209,930,268	100.0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50,872,982	22.8	4,203,074	9
13,286,659	6.0	422,655	3.3
2,505,312	1.1	180,976	7.8
33,132,864	14.8	1,552,886	4.9
45,076,594	20.2	4,234,382	10.4
2,011,940	0.9	205,914	11.4
2,944,397	1.3	△5,200	△0.2
24,602,678	11.0	910,872	3.8
5,875,755	2.6	215,130	3.8
7,117,711	3.2	1,993,963	38.9
4,671,112	2.1	229,471	5.2
16,740,828	7.5	2,124,028	14.5
360,775	0.2	△25,417	△6.6
6,855,499	3.1	△3,660,106	△34.8
4,683,273	2.1	625,484	15.4
2,400,000	1.1	0	0
223,138,378	100.0	13,208,110	6.3

나. 소관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Agency)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01. 대통령실 (Office of the President)	161,881
02. 국회 (National Assembly)	517,491
03. 대법원 (Supreme Court)	1,184,179
04.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31,450
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253,265
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4,317
07.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101,007
08.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496,399
09.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477,143
10. 기획재정부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5,859,998
• 예비비 (Contingency)	2,400,000
• 일반경비 (General Expenses)	13,459,998
11.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44,127,439
• 교육재정교부금 (Revenue Sharing to Local Educational Agency)	35,283,120
• 일반경비 (General Adm.)	8,844,319
12.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1,744,398
13.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555,621
14.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2,430,429
15.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1,709,576
16.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33,780,488
• 지방재정교부금 (Revenue Sharing)	30,190,380
• 일반경비 (General Expenses)	3,590,108
17.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1,360,098
18.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313,701
19.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3,441,707
20.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20,736,845
21.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2,816,603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167,995	6,114	3.8
506,033	△11,458	△2.2
1,156,175	△28,004	△2.4
34,283	2,833	9
812,171	558,906	220.7
22,968	△1,349	△5.5
103,577	2,570	2.5
468,997	△27,402	△5.5
488,599	11,456	2.4
16,153,818	293,820	1.9
2,400,000	0	0
13,753,818	293,820	2.2
48,781,395	4,653,956	10.5
38,447,272	3,164,152	9
10,334,123	1,489,804	16.8
1,969,443	225,045	12.9
512,901	△42,720	△7.7
2,451,692	21,263	0.9
23,063,758	1,354,182	6.2
36,833,917	3,053,429	9
33,029,475	2,839,095	9.4
3,804,442	214,334	6
1,541,935	181,837	13.4
5,244,308	1,930,607	58.3
3,553,132	111,425	3.2
22,242,213	1,505,368	7.3
2,838,970	22,367	0.8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22.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295,780
23.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69,671
24.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1,526,705
25. 특임장관실 (Office of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9,409
26. 법제처 (Ministry of Legislation)	24,431
27.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3,687,781
28.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2,079
30.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05,017
32.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78,843
33.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555,631
34.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61,326
3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1,421,192
36. 관세청 (Customs Service)	417,291
38. 통계청 (National Statistics Korea)	280,185
39.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176,856
40.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9,693,546
41.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7,623,111
42.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515,673
43.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445,928
44.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598,807
45.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211,240
46.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	1,531,092
48.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	225,070
49.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278,245
50. 해양경찰청 (National Maritime Police Adm.)	995,772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Multi 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611,216
5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44,332
53.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0
합계 (Total)	209,930,268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1,658,058	362,278	28
205,157	35,486	20.9
20,367,802	△1,158,903	△5.4
9,499	90	1
25,575	1,144	4.7
3,863,794	176,013	4.8
23,055	976	4.4
284,395	△20,622	△6.8
84,622	5,779	7.3
423,107	△1,132,524	△72.8
65,621	4,295	7
1,370,781	△50,411	△3.5
415,989	△1,302	△0.3
235,597	△44,588	△15.9
175,303	△1,553	△0.9
9,893,803	200,257	2.1
7,932,601	309,490	4.1
646,309	130,636	25.3
470,005	24,077	5.4
619,422	20,615	3.4
1,253,982	42,742	3.5
1,742,959	211,867	13.8
239,139	14,069	6.3
293,551	15,306	5.5
1,011,401	15,629	1.6
742,249	131,033	21.4
58,973	14,641	33
77,348	77,348	순증
223,138,378	13,208,110	6.3

다. 기능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금 액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46,669,908	22.2
1) 입법및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770,756	0.4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477,143	0.2
3) 지방행정 · 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30,710,977	14.6
4) 재정 · 금융(Budget & Finance)	12,293,751	5.9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665,691	0.3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1,751,590	0.8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2,864,004	6.1
1) 법원및헌재 (Court & Constitutional Court)	1,215,629	0.6
2) 법무및검찰 (Justice & Prosecution)	2,430,429	1.2
3) 경찰 (Police)	7,668,101	3.7
4) 해경 (Maritime Police)	982,197	0.5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567,647	0.3
3. 외교 · 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2,324,336	1.1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579,938	0.3
2) 외교 · 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1,744,398	0.8
4. 국방 (National Defense)	31,579,978	15.0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12,818,486	6.1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Strength)	8,891,090	4.2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9,693,546	4.6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176,856	0.1
5. 교육 (Education)	40,842,212	19.5
1) 유아및초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35,783,205	17.0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4,579,735	2.2
3) 평생 · 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356,121	0.2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23,151	0.1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50,872,982	22.8	4,203,074	9
1,318,204	0.6	547,448	71
488,599	0.2	11,456	2.4
33,621,313	15.1	2,910,337	9.5
13,075,827	5.9	782,075	6.4
661,068	0.3	△4,623	△0.7
1,707,971	0.8	△43,619	△2.5
13,286,659	6.0	422,655	3.3
1,190,457	0.5	△25,172	△2.1
2,451,692	1.1	21,263	0.9
7,970,376	3.6	302,274	3.9
1,001,244	0.4	19,047	1.9
672,890	0.3	105,242	18.5
2,505,312	1.1	180,976	7.8
535,869	0.2	△44,069	△7.6
1,969,443	0.9	225,045	12.9
33,132,864	14.8	1,552,886	4.9
13,492,324	6.0	673,838	5.3
9,571,435	4.3	680,345	7.7
9,893,803	4.4	200,257	2.1
175,303	0.1	△1,553	△0.9
45,076,594	20.2	4,234,382	10.4
38,804,798	17.4	3,021,592	8.4
5,830,821	2.6	1,251,086	27.3
320,337	0.1	△35,785	△10.0
120,639	0.1	△2,512	△2.0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금 액Amount	구성비(%) Composition
6.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1,806,026	0.9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1,098,020	0.5
2) 관광 (Tourism)	11,831	0.0
3) 체육 (Sports)	59,993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445,928	0.2
5) 문화및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190,254	0.1
7.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2,949,597	1.4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32,994	0.1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2,816,603	1.3
8.사회복지 (Social Welfare)	23,691,806	11.3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7,516,784	3.6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1,146,586	0.5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1,677,345	0.8
4) 보육·가족및여성 (Childcare, Family & Women)	2,658,957	1.3
5) 노인·청소년(The Aged & Youth)	3,734,996	1.8
6) 노동 (Labor)	1,295,780	0.6
7)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3,687,781	1.8
8) 주택 (Housing)	1,446,648	0.7
9)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526,930	0.3
9.보건 (Health)	5,660,625	2.7
1) 보건의료 (Healthcare)	788,413	0.4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4,647,142	2.2
3) 식품의약품안전 (Food & Drug Safety)	225,070	0.1
10.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5,123,748	2.4
1) 농업·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3,473,380	1.7
2) 임업·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211,240	0.6
3) 수산·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439,128	0.2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2,011,940	0.9	205,914	11.4
1,281,122	0.6	183,102	16.7
6,849	0.0	△4,982	△42.1
63,199	0.0	3,206	5.3
470,005	0.2	24,077	5.4
190,765	0.1	510	0.3
2,944,397	1.3	△5,200	△0.2
105,427	0.0	△27,567	△20.7
2,838,970	1.3	22,367	0.8
24,602,678	11.0	910,871	3.8
7,902,802	3.5	386,018	5.1
1,223,672	0.5	77,086	6.7
1,922,029	0.9	244,684	14.6
3,223,163	1.4	564,207	21.2
3,944,381	1.8	209,385	5.6
1,658,058	0.7	362,278	28
3,863,794	1.7	176,013	4.8
306,513	0.1	△1,140,135	△78.8
558,265	0.3	31,336	5.9
5,875,755	2.6	215,130	3.8
688,392	0.3	△100,021	△12.7
4,948,224	2.2	301,082	6.5
239,139	0.1	14,069	6.3
7,117,711	3.2	1,993,963	38.9
5,637,979	2.5	2,164,599	62.3
1,253,982	0.6	42,741	3.5
225,750	0.1	△213,378	△48.6

제3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금 액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4,441,641	2.1
1) 산업금융지원 (Support for Industry Finance)	300,012	0.1
2) 산업기술지원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539,100	0.3
3) 무역및투자유치 (Trade & Investment Promotion)	434,686	0.2
4) 산업진흥 · 고도화(Promotion & Development of Industry)	2,375,649	1.1
5) 에너지및자원개발 (Development of Energy & Resources)	371,004	0.2
6) 산업 · 중소기업일반 (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421,190	0.2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14,616,800	7.0
1) 도로 (National Road)	6,244,728	3.0
2) 철도 (Railroad)	4,327,465	2.1
3) 도시철도 (Urban Railroad)	1,071,831	0.5
4) 해운 · 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322,902	0.6
5) 항공 · 공항(Aviation & Airport)	12,685	0.0
6) 물류등기타 (Logistics & Others)	1,637,188	0.8
13. 통신 (Communication)	386,192	0.2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386,192	0.2
14. 국토및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10,515,605	5.0
1) 수자원 (Water Resources)	5,018,160	2.4
2) 지역및도시 (Region & City)	5,497,245	2.6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200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4,057,789	1.9
1) 기술개발 (Technology Development)	1,721,692	0.8
2)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1,992,929	0.9
3)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343,167	0.2
16. 예비비 (Reserve Funds)	2,400,000	1.1
1) 예비비 (Reserve Funds)	2,400,000	1.1
합계 (Total)	209,930,268	100.0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4,671,112	2.1	229,471	5.2
228,488	0.1	△71,524	△23.8
615,145	0.3	76,045	14.1
357,178	0.2	△77,508	△17.8
2,487,768	1.1	112,119	4.7
410,589	0.2	39,585	10.7
571,944	0.3	150,754	35.8
16,740,828	7.5	2,124,028	14.5
7,857,446	3.5	1,612,718	25.8
5,068,172	2.3	740,707	17.1
1,107,666	0.5	35,835	3.3
1,352,263	0.6	29,361	2.2
12,640	0.0	△45	△0.4
1,342,641	0.6	△294,547	△18.0
360,775	0.2	△25,418	△6.6
360,775	0.2	△25,418	△6.6
6,855,499	3.1	△3,660,107	△34.8
2,901,987	1.3	△2,116,173	△42.2
3,949,312	1.8	△1,547,934	△28.2
4,200	0.0	4,000	2,000.00
4,683,273	2.1	625,485	15.4
2,032,025	0.9	310,333	18
2,259,023	1.0	266,094	13.4
392,224	0.2	49,057	14.3
2,400,000	1.1	0	0
2,400,000	1.1	0	0
223,138,378	100.0	13,208,110	6.3

제3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라. 성질별 세출내역(Expenditure by Function)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100 인건비(Personnel Expenses)	23,175,836
110 인건비(Personnel Expenses)	23,175,836
200 물건비(Goods Services)	16,045,848
210 운영비(Office Operation)	11,671,716
220 여비(Travel Expenses)	553,696
230 특수활동비(Special Operation Expenses)	849,848
240 업무추진비(Management Expenses)	186,513
250 직무수행경비(Work Operation Expenses)	1,663,328
260 연구개발비(R & D Expenses)	1,120,748
300 이전지출(Current Transfers)	110,995,604
310 보전금(Compensation)	9,296,763
320 민간이전(Transfers to Privates Sector)	4,878,805
330 자치단체이전(Transfers to Local Gov't)	82,908,814
340 해외이전(Overseas Transfers)	1,115,128
350 출연금(Funding)	12,796,094
400 자산취득(Asset Acquisition)	17,766,470
410 토지매입비(Land Acquisition)	710,378
420 건설비(Construction & Facilities Expenses)	8,485,857
430 유형자산(Tangible Assets)	8,403,319
440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14,816
460 출자금(Investment)	152,100
500 상환지출(Repayment of Loans)	7,466,551
510 상환지출(Repayment of Loans)	7,466,551
600 전출금등(Transfers)	32,075,951
610 전출금등(Transfers)	32,075,951
700 예비비및기타(Contingency & Others)	2,404,008
710 예비비및기타(Contingency & Others)	2,404,008
합 계 (Total)	209,930,268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24,269,515	1,093,679	4.7
24,269,515	1,093,679	4.7
16,917,202	871,355	5.4
12,405,902	734,186	6.3
574,836	21,140	3.8
837,590	△12,258	△1.4
200,340	13,827	7.4
1,684,354	21,026	1.3
1,214,181	93,433	8.3
121,642,724	10,647,120	9.6
10,441,934	1,145,171	12.3
4,384,487	△494,318	△10.1
90,431,058	7,522,244	9.1
1,244,374	129,246	11.6
15,140,870	2,344,776	18.3
14,580,184	△3,186,286	△17.9
432,079	△278,300	△39.2
5,024,164	△3,461,693	△40.8
8,848,076	444,757	5.3
15,555	739	5
260,310	108,210	71.1
6,941,492	△525,059	△7.0
6,941,492	△525,059	△7.0
36,381,076	4,305,125	13.4
36,381,076	4,305,125	13.4
2,406,184	2,176	0.1
2,406,184	2,176	0.1
223,138,378	13,208,110	6.3

마. 2012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소 관 Agency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 (110-01) Wages	기타직보수 (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일용임금 (110-03) Daily Wages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2,270,319	2,146,532	63,612	60,175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8,712,795	8,519,979	181,044	11,772
3. 외교 · 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387,994	279,166	100,442	8,386
4. 국방 (National Defense)	9,063,913	8,985,155	54,558	24,200
5. 교육 (Education)	1,671,218	1,547,143	118,005	6,069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264,913	175,460	65,063	24,390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0	0	0	0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570,356	409,077	128,501	32,778
9. 보건 (Health)	82,489	73,117	922	8,449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539,745	450,823	54,936	33,987
11.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156,002	146,787	9,156	58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358,385	325,589	30,057	2,739
13. 통신 (Communication)	94,019	87,752	5,412	855
14. 국토및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11,857	5,245	3,627	2,985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85,512	79,257	5,179	1,076
16. 예비비 (Reserve Funds)	0	0	0	0
합계 (Total)	24,269,515	23,231,084	820,512	217,919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 (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2,556,445	34,835,269	268,113	6,803,807	4,135,244	3,785	50,872,982
2,892,382	921,936	670,154	169	88,697	525	13,286,659
465,361	1,263,663	46,127	42,166	300,000	0	2,505,312
8,190,075	2,679,745	10,890,638	0	2,308,493	0	33,132,864
368,651	42,146,407	377,602	17,118	493,905	1,693	45,076,594
327,777	996,410	235,123	0	187,694	23	2,011,940
24,382	33,904	47,141	0	2,838,970	0	2,944,397
431,197	21,430,340	105,459	215	2,064,953	157	24,602,678
180,285	5,349,572	30,977	500	231,932	0	5,875,755
519,837	769,871	425,219	203	4,862,836	0	7,117,711
91,581	3,482,520	171,849	0	769,160	1	4,671,112
474,653	1,359,777	169,687	77,314	14,301,012	0	16,740,828
80,077	169,239	11,690	0	5,750	0	360,775
177,969	1,838,113	1,088,413	0	3,739,146	0	6,855,499
136,529	4,365,958	41,991	0	53,283	0	4,683,273
0	0	0	0	0	2,400,000	2,400,000
16,917,202	121,642,724	14,580,184	6,941,492	36,381,076	2,406,184	223,138,378

바. 2012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분 Classification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방 National Defense	교육 Education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2,270,319	8,712,795	387,994	9,063,913	1,671,218	264,913	0
110 보수 (Wages)	2,146,532	8,519,979	279,166	8,985,155	1,547,143	175,460	0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Daily Wages)	63,612	181,044	100,442	54,558	118,005	65,063	0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60,175	11,772	8,386	24,200	6,069	24,390	0
200 물건비 (Goods & Services)	2,556,445	2,892,382	465,361	8,190,075	368,651	327,777	24,382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452,009	1,690,871	358,162	6,753,798	311,401	270,868	12,313
220 여비 (Travel Expenses)	189,482	98,156	46,741	143,504	6,339	11,991	309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513,856	157,497	2,317	157,503	0	0	0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50,243	36,379	27,320	63,233	2,161	3,751	25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211,189	869,187	12,292	458,610	37,285	9,846	364
260 연구개발비 (R & D Expenses)	139,666	40,292	18,529	613,428	11,464	31,321	11,371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34,835,269	921,936	1,263,663	2,679,745	42,146,407	996,410	33,904
310 보전금 (Compensation)	239,860	53,945	81,759	600,682	51,533	13,332	20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 Sector)	211,312	158,705	49,526	96,292	181,465	629,715	20,232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33,571,096	563,216	10,115	63	38,577,432	348,581	12,552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Affairs&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통신 Communic 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계 Total
570,356	82,489	539,745	156,002	358,385	94,019	11,857	85,512	0	24,269,515
409,077	73,117	450,823	146,787	325,589	87,752	5,245	79,257	0	23,231,084
128,501	922	54,936	9,156	30,057	5,412	3,627	5,179	0	820,512
32,778	8,449	33,987	58	2,739	855	2,985	1,076	0	217,919
431,197	180,285	519,837	91,581	474,653	80,077	177,969	136,529	0	16,917,202
333,912	115,091	450,656	58,834	344,206	62,131	87,666	103,984	0	12,405,902
23,886	6,248	22,929	8,441	8,296	4,030	1,480	3,004	0	574,836
0	0	0	0	0	3,490	0	2,926	0	837,590
6,383	661	2,413	2,502	2,596	1,330	364	979	0	200,340
26,540	4,378	21,630	7,844	15,628	4,673	361	4,526	0	1,684,354
40,476	53,907	22,210	13,959	103,927	4,423	88,099	21,110	0	1,214,181
21,430,340	5,349,572	769,871	3,482,520	1,359,777	169,239	1,838,113	4,365,958	0	121,642,724
4,442,207	4,950,448	6,441	986	254	157	270	41	0	10,441,934
877,581	127,470	177,628	556,015	433,793	27,166	790,523	47,066	0	4,384,487
15,755,269	107,018	387,846	24,600	53,824	0	1,013,473	5,974	0	90,431,058

구분 Classification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 Safety	외교·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방 National Defense	교육 Education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40 해외이전 (Overseas Transfers)	103,617	3,772	577,632	385,808	68,602	2,282	1,100
350 출연금 (Funding)	709,384	142,299	544,630	1,596,900	3,267,375	2,500	0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268,113	670,154	46,127	10,890,638	377,602	235,123	47,141
410 토지매입비 (Land Assets)	4,000	0	0	75,950	1,000	3,000	0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90,364	374,439	24,679	2,709,027	277,364	196,769	45,412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71,695	287,141	21,436	8,104,883	99,238	35,068	1,729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055	8,574	12	779	0	286	0
460 출자금 (Capital Investment)	0	0	0	0	0	0	0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6,803,807	169	42,166	0	17,118	0	0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6,803,807	169	42,166	0	17,118	0	0
600 전출금등 (Transfers)	4,135,244	88,697	300,000	2,308,493	493,905	187,694	2,838,970
610 전출금등 (Transfers)	4,135,244	88,697	300,000	2,308,493	493,905	187,694	2,838,970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3,785	525	0	0	1,693	23	0
71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3,785	525	0	0	1,693	23	0
합계 (Total)	50,872,982	13,286,659	2,505,312	33,132,864	45,076,594	2,011,940	2,944,397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Affairs& Fisheries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Logistics	통신 Communi- cation	국토 및 지역개발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비비 Reserve Funds	합계 Total
35,091	4,229	44,066	3,131	2,883	3,782	0	8,377	0	1,244,374
320,193	160,407	153,890	2,897,789	869,023	138,133	33,847	4,304,500	0	15,140,870
105,459	30,977	425,219	171,849	169,687	11,690	1,088,413	41,991	0	14,580,184
679	0	93,702	101,366	5,750	0	142,250	4,382	0	432,079
30,820	7,198	228,236	45,959	144,258	5,518	816,231	27,890	0	5,024,164
15,453	22,813	48,850	7,959	14,879	5,072	2,262	9,599	0	8,848,076
1,907	966	191	565	0	100	0	120	0	15,555
56,600	0	54,240	16,000	4,800	1,000	127,670	0	0	260,310
215	500	203	0	77,314	0	0	0	0	6,941,492
215	500	203	0	77,314	0	0	0	0	6,941,492
2,064,953	231,932	4,862,836	769,160	14,301,012	5,750	3,739,146	53,283	0	36,381,076
2,064,953	231,932	4,862,836	769,160	14,301,012	5,750	3,739,146	53,283	0	36,381,076
157	0	0	1	0	0	0	0	2,400,000	2,406,184
157	0	0	1	0	0	0	0	2,400,000	2,406,184
24,602,678	5,875,755	7,117,711	4,671,112	16,740,828	360,775	6,855,499	4,683,273	2,400,000	223,138,378

3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구 분 Classification	2011년도 예산 FY2011 Budget
(1)농어촌구조개선 (Agri.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8,726,715
(2)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14,489,864
(3)등기 (Registration S/A)	240,070
(4)교도작업 (Prison Operation S/A)	42,986
(5)에너지및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Management S/A)	4,084,722
(6)환경개선 (Environment Reconstruction S/A)	4,271,464
(7)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652,832
(8)주한미군기지이전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 Relocation S/A)	386,900
(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S/A)	785,936
(10)국방·군사시설이전 (Defense·Military Facility Relocation S/A)	822,660
(11)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S/A)	1,366,387
(12)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71,876
(13)광역지역발전 (Regional Development S/A)	9,852,576
(14)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1,389,007
(15)책임운영기관 (Agency S/A)	716,354
(16)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S/A)	382,200
(17)우편사업 (Postal Service S/A)	3,672,054
(18)우체국예금 (Postal Savings S/A)	2,207,991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54,162,594

(단위:백만원, In Million KRW)

2012년도 예산 FY2012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율(%) Rate
13,681,360	4,954,645	56.8
15,010,125	520,261	3.6
249,351	9,281	3.9
41,960	△1,026	△2.4
4,694,618	609,896	14.9
4,363,959	92,495	2.2
703,815	50,983,000	7.8
385,007	△1,893	△0.5
802,753	16,817	2.1
531,694	△290,966	△35.4
898,577	△467,810	△34.2
99,048	27,172	37.8
9,408,497	△444,079	△4.5
1,428,678	39,671	2.9
775,903	59,549	8.3
254,688	△127,513	△33.4
3,699,178	27,124	0.7
2,519,748	311,757	14.1
59,548,959	5,386,365	9.9

4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단위: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1예산	2012예산	증(△)감
합 계		(\$544,716,740) 2,267,952,116	(\$498,064,382) 2,159,771,256	(△\$46,652,358) △108,180,860
I. 일반회계		(\$544,716,740) 1,767,952,116	(\$498,064,382) 1,659,771,256	(△\$46,652,358) △108,180,860
1. 외교통상부	○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49,561,103) 56,995,269	-	(△\$49,561,103) △56,995,269
2. 국 방 부	○ 경상운영비 (급식, 장비유지 등)	(\$495,155,637) 1,689,401,440	(\$498,064,382) 1,648,471,256	(\$2,908,745) △40,930,184
3. 방위사업청	○ 방위력개선비	9,355,407	-	△9,355,407
4. 해양경찰청	○ 대형함정 건조사업	12,200,000	11,300,000	△900,000
II. 특별회계		500,000,000	500,000,000	-
1.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해양부)	소 계	500,000,000	500,000,000	-
	○ 일반국도 건설	400,000,000	400,000,000	-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000,000	100,000,000	-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enses)

(단위: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1예산	2012예산	증(△)감
I. 일반회계		(\$23,635,538) 89,703,869	(\$64,778,061) 108,612,525	(\$41,142,523) 18,908,656
1. 국방부 ¹⁾	소 계	(\$5,607,463) 48,448,583	32,300,000	(△\$5,607,463) △16,148,583
	○ 군수지원 및 협력	(\$5,607,463) 6,448,583	-	(△\$5,607,463) △6,448,583
	○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42,000,000	32,300,000	△9,700,000
2. 방위사업청 ²⁾	소 계	(\$18,028,075) 41,255,286	(\$64,778,061) 76,312,525	(\$46,749,986) 35,057,239
	○ 기동전력	11,466,000	-	△11,466,000
	○ 함 정	2,000,000	-	△2,000,000
	○ 항공기	(\$8,425,675) 9,689,526	(\$64,778,061) 69,312,525	(\$56,352,386) 59,622,999
	○ 정밀타격/ 신틱수무기	(\$9,602,400) 11,042,760	-	(△\$9,602,400) △11,042,760
	○ 국방연구개발	7,057,000	-	△7,057,000
	○ 성능개량	-	7,000,000	7,000,000

〈 사유 및 내역 〉

1) 설계 지연에 의한 현물 군사건설사업 지연 등

2)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지연 및 신장비 개발지연 등

6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계속비연부액			
			2005	2006	2007	2008
	2011 예산	27,791,595,991	222,524,000	520,000,000	1,069,250,000	1,434,600,000
	2012 예산	31,686,967,000	222,524,000	520,000,000	1,069,250,000	1,434,600,000
일반 회계 (국토 해양부)	1. 울산신항복 방파제(1공구)					
	- 2011 예산	140,188,000	-	-	-	-
	- 2012 예산	140,188,000	-	-	-	-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2011 예산	101,485,785	-	-	-	-
	- 2012 예산	107,180,000	-	-	-	-
교통 시설 특별 회계 (국토 해양부)	3. 지역간선국도1차건설					
	- 2011 예산	2,184,011,000	222,524,000	300,000,000	365,000,000	398,200,000
	- 2012 예산	2,148,284,000	222,524,000	300,000,000	365,000,000	398,200,000
	4. 지역간선국도2차건설					
	- 2011 예산	2,461,582,333	-	220,000,000	370,750,000	383,000,000
	- 2012 예산	2,389,434,000	-	220,000,000	370,750,000	383,000,000
	5. 지역간선국도3차건설					
	- 2011 예산	2,965,370,333	-	-	333,500,000	406,000,000
	- 2012 예산	3,114,736,000	-	-	333,500,000	406,000,000
	6. 지역간선국도4차건설					
	- 2011 예산	2,389,928,513	-	-	-	247,400,000
	- 2012 예산	2,521,620,000	-	-	-	247,400,000
	7. 지역간선국도5차건설					
	- 2011 예산	4,086,280,287	-	-	-	-
- 2012 예산	4,253,833,000	-	-	-	-	

(단위:천원 In Thousand KRW)

계 속 비 연 부 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729,290,000	5,281,047,000	4,691,469,000	3,935,907,118	2,343,025,846	1,678,445,433	886,037,594	-
5,729,290,000	5,281,047,000	4,691,469,000	4,029,198,543	3,244,344,200	2,804,761,640	2,418,050,185	484,741,871
81,181,000	46,022,000	12,985,000	-	-	-	-	-
81,181,000	46,022,000	12,985,000	-	-	-	-	-
22,580,000	25,000,000	10,000,000	43,905,785	-	-	-	-
22,580,000	25,000,000	10,000,000	20,000,000	29,600,000	-	-	-
426,600,000	309,500,000	102,821,000	59,366,000	-	-	-	-
426,600,000	309,500,000	102,821,000	47,971,084	-	-	-	-
534,200,000	400,000,000	360,686,000	192,946,333	-	-	-	-
534,200,000	400,000,000	360,686,000	182,159,459	-	-	-	-
607,400,000	584,900,000	484,804,000	450,000,000	98,766,333	-	-	-
607,400,000	584,900,000	484,804,000	374,730,000	217,000,000	188,846,723	-	-
438,100,000	403,500,000	405,329,000	400,000,000	495,599,513	-	-	-
438,100,000	403,500,000	405,329,000	393,515,000	335,000,000	318,650,997	-	-
555,700,000	573,000,000	63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527,580,287	-
555,700,000	573,000,000	630,000,000	595,301,000	680,500,000	653,000,000	666,455,786	-

회계 및 소관	사 업 별	계속비총액	계 속 비 연 부 액			
			2005	2006	2007	2008
	8.지역간선국도6차건설					
	- 2011 예 산	1,882,687,307	-	-	-	-
	- 2012 예 산	1,913,811,000	-	-	-	-
	9.지역간선국도7차건설					
	- 2011 예 산	-	-	-	-	-
	- 2012 예 산	1,401,247,000	-	-	-	-
	10.물류간선1차건설					
	- 2011 예 산	3,156,168,433	-	-	-	-
	- 2012 예 산	3,082,670,000	-	-	-	-
	11.전라선복선전철					
	- 2011 예 산	273,733,000	-	-	-	-
	- 2012 예 산	273,733,000	-	-	-	-
	12.동순천-광양복선전철					
	- 2011 예 산	183,410,000	-	-	-	-
	- 2012 예 산	202,010,000	-	-	-	-
	13.경춘선복선전철					
	- 2011 예 산	814,300,000	-	-	-	-
	- 2012 예 산	827,300,000	-	-	-	-
	14.순천-여수복선전철					
	- 2011 예 산	347,595,000	-	-	-	-
	- 2012 예 산	347,595,000	-	-	-	-
	15.삼량진-진주복선전철					
	- 2011 예 산	960,364,000	-	-	-	-
	- 2012 예 산	1,050,115,000	-	-	-	-
	16.덕소-원주복선전철					
	- 2011 예 산	894,817,000	-	-	-	-
	- 2012 예 산	867,734,000	-	-	-	-

(단위:천원 In Thousand KRW)

계 속 비 연 부 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152,500,000	171,730,000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358,457,307	-
-	152,500,000	171,730,000	196,602,000	342,000,000	350,000,000	340,000,000	325,376,871
-	-	-	-	-	-	-	-
-	-	-	276,882,000	341,000,000	315,000,000	309,000,000	159,365,000
480,700,000	513,400,000	535,531,000	520,000,000	550,000,000	556,537,433	-	-
480,700,000	513,400,000	535,531,000	459,705,000	424,000,000	376,000,000	283,108,519	-
140,000,000	43,700,000	90,033,000	-	-	-	-	-
140,000,000	43,700,000	90,033,000	-	-	-	-	-
90,000,000	51,800,000	41,610,000	-	-	-	-	-
90,000,000	51,800,000	41,610,000	18,600,000	-	-	-	-
292,500,000	300,000,000	221,800,000	-	-	-	-	-
292,500,000	300,000,000	221,800,000	13,000,000	-	-	-	-
200,000,000	100,000,000	47,595,000	-	-	-	-	-
200,000,000	100,000,000	47,595,000	-	-	-	-	-
329,400,000	280,000,000	190,000,000	160,964,000	-	-	-	-
329,400,000	280,000,000	190,000,000	202,000,000	48,715,000	-	-	-
295,000,000	270,000,000	250,000,000	79,817,000	-	-	-	-
295,000,000	270,000,000	250,000,000	52,734,000	-	-	-	-

회계 및 소관	사 업 별	계속비총액	계 속 비 연 부 액			
			2005	2006	2007	2008
광역 지역 발전 특별 회계	17.성남-여주복선전철					
	- 2011 예 산	-	-	-	-	-
	- 2012 예 산	1,306,174,000	-	-	-	-
	18.진주-광양복선전철					
	- 2011 예 산	-	-	-	-	-
	- 2012 예 산	718,340,000	-	-	-	-
	19.부산신항배후철도					
	- 2011 예 산	319,453,000	-	-	-	-
	- 2012 예 산	319,453,000	-	-	-	-
	20.부산신항웅동배후단지					
	- 2011 예 산	231,672,000	-	-	-	-
	- 2012 예 산	236,561,000	-	-	-	-
	21.군장항남측안벽(3공구)					
	- 2011 예 산	73,229,000	-	-	-	-
	- 2012 예 산	73,229,000	-	-	-	-
	22.광양항서측배후단지					
	- 2011 예 산	296,155,000	-	-	-	-
	- 2012 예 산	236,655,000	-	-	-	-
	23.망우-금곡복선전철					
	- 2011 예 산	248,912,000	-	-	-	-
- 2012 예 산	262,512,000	-	-	-	-	
24.용산-문산복선전철						
- 2011 예 산	961,354,000	-	-	-	-	
- 2012 예 산	915,911,000	-	-	-	-	
25.오리-수원복선전철						
- 2011 예 산	586,414,000	-	-	-	-	
- 2012 예 산	644,288,000	-	-	-	-	

(단위:천원 In Thousand KRW)

계 속 비 연 부 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	-	-	-	-	-
-	-	-	230,000,000	322,852,200	301,328,720	451,993,080	-
-	-	-	-	-	-	-	-
-	-	-	140,000,000	173,502,000	161,935,200	242,902,800	-
161,000,000	110,919,000	47,534,000	-	-	-	-	-
161,000,000	110,919,000	47,534,000	-	-	-	-	-
77,732,000	45,343,000	73,588,000	17,763,000	17,246,000	-	-	-
77,732,000	45,343,000	73,588,000	24,922,000	14,976,000	-	-	-
36,800,000	29,073,000	7,356,000	-	-	-	-	-
36,800,000	29,073,000	7,356,000	-	-	-	-	-
99,211,000	62,565,000	60,000,000	74,379,000	-	-	-	-
99,211,000	62,565,000	60,000,000	14,879,000	-	-	-	-
90,000,000	105,000,000	53,912,000	-	-	-	-	-
90,000,000	105,000,000	53,912,000	13,600,000	-	-	-	-
170,000,000	280,000,000	250,000,000	261,354,000	-	-	-	-
170,000,000	280,000,000	250,000,000	190,000,000	25,911,000	-	-	-
145,000,000	140,000,000	140,000,000	150,000,000	11,414,000	-	-	-
145,000,000	140,000,000	140,000,000	100,000,000	119,288,000	-	-	-

회계 및 소관	사 업 별	계속비총액	계 속 비 연 부 액			
			2005	2006	2007	2008
	26.수원-인천복선전철					
	- 2011 예 산	826,908,000	-	-	-	-
	- 2012 예 산	929,590,000	-	-	-	-
	27.천안4산단진입도로					
	- 2011 예 산	121,659,000	-	-	-	-
	- 2012 예 산	121,659,000	-	-	-	-
	28.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 2011 예 산	892,777,000	-	-	-	-
	- 2012 예 산	885,103,000	-	-	-	-
일반 회계 (대법원)	29.서울북부지법청사					
	- 2011 예 산	37,400,000	-	-	-	-
	- 2012 예 산	37,400,000	-	-	-	-
	30.서울가정행정법원*					
	- 2011 예 산	83,488,000	-	-	-	-
	- 2012 예 산	68,922,000	-	-	-	-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31.국립생태원건립 (환경부)					
	- 2011 예 산	270,254,000	-	-	-	-
	- 2012 예 산	289,680,000	-	-	-	-

*11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

(단위:천원 In Thousand KRW)

계 속 비 연 부 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0,000,000	110,000,000	145,000,000	180,000,000	170,000,000	121,908,000	-	-
100,000,000	110,000,000	145,000,000	140,000,000	170,000,000	140,000,000	124,590,000	-
74,550,000	20,760,000	26,349,000	-	-	-	-	-
74,550,000	20,760,000	26,349,000	-	-	-	-	-
170,030,000	200,000,000	250,000,000	272,747,000	-	-	-	-
170,030,000	200,000,000	250,000,000	265,073,000	-	-	-	-
30,644,000	6,756,000	-	-	-	-	-	-
30,644,000	6,756,000	-	-	-	-	-	-
6,762,000	18,409,000	25,706,000	32,611,000	-	-	-	-
6,762,000	18,409,000	25,706,000	18,045,000	-	-	-	-
74,200,000	98,900,000	57,100,000	40,054,000	-	-	-	-
74,200,000	98,900,000	57,100,000	59,480,000	-	-	-	-

| 제2장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기금(Employment Insurance Fund) - 공무원연금기금(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 국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 - 군인연금기금(Military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관리기금(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공적자금상환기금(Public Fund Repayment Fund) - 복권기금(Lottery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외국환평형기금(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신용보증기금(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 구조조정기금(Finance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Bounty Fund for the Raising Lump-Sum Savings of Farming & Fishing Households) - 부실채권정리기금(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Industrial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무역보험기금(Trade Insurance Fund) - 신용보증기금(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구분 Classification	기금명 Name of Fund
<p>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4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 국제교류기금 (International Exchange Fund)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근로복지진흥기금 (Workers' Welfare Promotion Fund) - 금강수계관리기금 (Kum River Basin Management Fund)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Fund)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 Price Stabilization Fund)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s & Independence Fighters)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Yeongsan and Sumjin River Basin Management Fund) - 영화발전기금 (Motion Picture Development Fund)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und for the Disabled)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 (Juvenile Nurture Fund)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Fund for Rationalization of the Use of Specific Substances) - 한강수계관리기금 (Han River Basin Management Fund)
<p>합 계</p>	<p>총 65개 기금</p>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단위:조원, In Trillion KRW)

구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11년도 FY2011	2012년도 FY2012	증감률	
운용규모	369.3	379.5	2.7	
수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117.3	125.0	6.6
	• 정부내부수입 (Intragovernmental Revenues)	61.6	68.7	11.5
	• 차입금(Borrowings)	102.0	98.6	△3.3
	• 여유자금회수 (Idle Money Collection)	88.5	87.2	△1.5
지출	• 사업비(Project Cost)	85.6	86.8	1.3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37.9	41.2	8.4
	– 금융성·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12.8	8.6	△33.3
	– 사업성(Project Fund)	34.9	37.1	6.4
	• 기금운영비(Fund operation)	2.4	2.3	△3.1
	• 정부내부지출등 (Intragovernmental Expenditures)	152.1	159.3	4.8
	• 여유자금운용 (Idle Money Management)	129.2	131.0	1.4

3 기금 수입 (Fund Revenues)

(단위: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합계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56,889	4,814	-	22,767	84,471
공무원연금기금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109,562	22,736	2,268	27,441	162,007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435,893	107	-	356,307	792,307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5,021	21,892	-	164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44,498	4,940	-	43,474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56,634	3,453	-	40,194	100,281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45,230	285,891	798,336	1,909	1,131,366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20	22,896	-	-	22,916
복권기금 (Lottery Fund)	30,037	155	-	6,742	36,934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4,300	-	80	4,383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35,155	180,000	10,700	135,796	361,652
구조조정기금(Fiance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4,816	-	-	4,936	9,752
기술신용보증기금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11,167	38	-	11,886	23,09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4,008	-	-	10,644	14,65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Bounty Fund for the Raising Lump-Sum Savings of Farming & Fishing Households)	373	369	-	345	1,088
무역보험기금 (Trade Insurance Fund)	10,455	300	-	14,518	25,272
부실채권정리기금 (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21,770	-	-	1,568	23,339

(단위: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합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Industrial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336	180	-	1,723	2,239
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25,690	88	-	34,153	59,9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31,188	-	58,000	16,227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9,897	-	-	10,792	20,689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500	749	-	149	1,399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6,705	41	-	405	7,150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16,662	2,500	-	1,051	20,213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121,166	90,282	90,000	70,852	372,300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6,091	1,771	-	1,620	9,482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9,686	-	-	-	9,686
국제교류기금 (International Exchange Fund)	599	103	-	300	1,002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4,840	238	-	2,799	7,877
근로복지진흥기금 (Workers' Welfare Promotion Fund)	1,800	222	-	2,425	4,447
금강수계관리기금 (Kum River Basin Management Fund)	974	-	-	-	97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Fund)	2,071	-	-	-	2,071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885	7,000	-	8,253	16,13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 Price Stabilization Fund)	22,826	32	-	3,299	26,15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86	350	-	2,094	2,629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0,940	113	-	5,593	16,645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130	4,990	-	693	6,813
문화예술진흥기금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802	590	-	1,277	2,669
문화재보호기금 (Heritage Protection Fund)	55	939	-	308	1,30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3,797	1,578	-	3,788	9,163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3,251	652	-	4,356	8,259

(단위: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합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6	558	-	69	633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2,483	250	-	3,160	5,894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041	1,450	-	510	4,002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95	45	-	5	145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302	660	-	828	6,79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s & Independence Fighters)	118	53	-	448	61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22	2,137	-	27	2,185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104	100	-	357	561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47	1,009	-	43	1,09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Yongsan and Sumjin River Basin Mangement Fund)	726	-	-	47	773
영화발전기금 (Motion Picture Development Fund)	1,170	419	-	1,289	2,87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1,904	-	-	190	2,095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126	1,901	-	353	2,380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4,061	324	-	2,110	6,495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629	5,323	-	318	6,27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und for the Disabled)	2,782	330	-	870	3,981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18,675	132	-	3,167	21,974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3,102	3,642	-	4,554	11,29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42,742	3,877	26,517	267	73,402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23	-	-	230	253
청소년육성기금 (Juvenile Nurture Fund)	261	344	-	230	835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5,777	-	-	1,593	7,37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Fund for Rationalization of the Use of Specific Substances)	76	-	-	79	155
한강수계관리기금 (Han River Basin Management Fund)	4,346	-	-	-	4,346

4 기금 지출 (Fund Expenditures)

(단위: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합계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60,049	1,021	-	23,400	84,471
공무원연금기금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125,615	905	208	35,278	162,007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120,335	4,070	-	667,902	792,307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25,066	5	-	2,006	27,0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35,798	774	-	56,340	92,91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44,644	2,861	3,000	49,775	100,281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2,533	1	1,128,528	304	1,131,366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47	-	22,393	476	22,916
복권기금 (Lottery Fund)	19,976	17	14,707	2,233	36,934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4,300	83	4,383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	5	102,567	259,079	361,652
구조조정기금 (Finance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	144	6,158	3,450	9,752
기술신용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12,577	1,551	1,500	7,464	23,09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2,775	583	-	11,294	14,65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Bounty Fund for the Raising Lump-Sum Savings of Farming & Fishing Households)	972	-	-	116	1,088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9,275	968	-	15,029	25,272
부실채권정리기금 (Non-performing Asset Management Fund)	2,981	1,613	18,745	-	23,339

(단위: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합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Industrial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88	105	-	1,945	2,239
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29,630	3,199	3,500	23,601	59,93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479	153	69,613	35,170	105,4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4,197	623	322	15,546	20,689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1,007	9	344	39	1,399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6,088	6	600	457	7,150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18,717	1	385	1,109	20,213
국민주택기금 (National Housing Fund)	165,557	5	159,752	46,986	372,300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7,120	224	-	2,138	9,482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9,618	18	50	-	9,686
국제교류기금 (International Exchange Fund)	493	126	-	383	1,002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4,745	-	-	3,131	7,877
근로복지진흥기금 (Workers' Welfare Promotion Fund)	667	108	1,313	2,360	4,447
금강수계관리기금 (Kum River Basin Management Fund)	928	17	-	29	97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Fund)	1,995	33	-	43	2,071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0,060	56	5,321	701	16,13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 Price Stabilization Fund)	22,023	625	-	3,509	26,15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80	7	-	2,543	2,629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8,933	575	5,000	2,137	16,645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277	85	121	330	6,813
문화예술진흥기금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1,099	256	-	1,314	2,669
문화재보호기금 (Heritage Protection Fund)	1,098	2	-	202	1,30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737	427	1,500	5,499	9,163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5,339	38	200	2,682	8,259

(단위: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자체수입	정부내부 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합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565	1	-	67	633
보훈기금 (Patriots and Veterans Fund)	1,222	13	4	4,655	5,894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453	42	719	788	4,002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Health Damage Relief Fund)	83	18	-	44	145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723	15	36	1,017	6,79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s & Independence Fighters)	60	2	-	557	619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Rice Income Stabilization Fund)	620	76	118	1,371	2,185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31	10	-	320	561
여성발전기금 (Women's Development Fund)	1,041		15	43	1,09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Youngsan and Sumjin River Basin Management Fund)	696	12	-	65	773
영화발전기금 (Motion Picture Development Fund)	1,021	96	-	1,761	2,87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Atomic Energy Research & Development Fund)	1,751	39	-	305	2,095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1,989	1	-	390	2,380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2,717	102	300	3,376	6,49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5,700	35	-	534	6,27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und for the Disabled)	1,830	459	227	1,465	3,981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15,764	92	2,000	4,118	21,974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6,723	167	2,000	2,407	11,29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35,050	809	37,543	-	73,402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105	7	-	142	253
청소년육성기금 (Juvenile Nurture Fund)	620	1	-	215	835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6,879	35	56	400	7,37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Fund for Rationalization of the Use of Specific Substances)	42	5	-	108	155
한강수계관리기금 (Han River Basin Management Fund)	4,252	73	-	22	4,346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김현곤	예산관리과 과장	종합 편집
유영섭	예산관리과 사무관	"
김태훈	예산관리과 사무관	"
이선호	예산관리과 주무관	"
김경민	예산관리과 에디터	"
문성유	예산총괄과 과장	제2부 중 재정운용 전략 제3부 중 2011년도 예산, 예산통계
이제훈	예산총괄과 서기관	"
김준철	예산총괄과 사무관	제2부 중 재정운용 전략
최장원	예산총괄과 사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최상대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중 재정운용 여건, 세입규모, 지출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11년도 자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정 한	예산정책과 서기관	"
문희영	예산정책과 사무관	"
정정훈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3부 중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 통계
황희정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허현정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제3부 중 기금통계
이형철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제2부 중 R&D 분야
한재용	연구개발예산과 서기관	"
한 훈	지식경제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성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윤범식	지식경제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강승준	국토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중 SOC분야
김경국	국토해양예산과 사무관	"
임기근	농림수산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조규산	농림수산예산과 사무관	"
방기선	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보건·복지 분야
박재형	복지예산과 서기관	"
이장로	노동환경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일자리 분야, 환경 분야
강준모	노동환경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일자리 분야
임혜영	노동환경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환경 분야
이종욱	교육과학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교육 분야
최용호	교육과학예산과 사무관	"
이정도	문화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류승수	문화예산과 사무관	"
오규택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국방 분야
육현수	국방예산과 사무관	"
류양훈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중 통일·외교 분야
김만수	행정예산과 사무관	"
박영각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
이보인	법사예산과 서기관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02-734-6818(매장) 또는 02-394-0337(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2 나라살림(예산개요)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발행처	기획재정부
발행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발행일	2012년 2월
연락처	Tel. 02-2150-7194 Fax. 02-3418-0968

값 : 14,000원